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 중영일보

“최고” GREENWAY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01호

Wednesday, April 24, 2024 A

## 한인 전사자 이름 딴 다리 생겼다

이라크 전사 문재식 하사 기려  
펜실베이니아주 벅스카운티내  
미들타운 타운십에 추모 다리  
“공로와 희생 영원히 기릴 것”



문재식 하사의 유가족,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재 S. 문 하사 추모 다리' 명명식 이다리 입구에서 열렸다. [Neshaminy School District 제공]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한인의 이름이 다리에 새겨졌다. 전국에서 한인 전사자의 이름을 딴 추모 다리가 생긴 건 두 번째다. 펜실베이니아주 지역 매체 '레빗타운나우'에 따르면 지난 19일 벅스카운티 트랜톤로드 다리를 고 문재식 하사의 이름을 딴 추모 다리로 명명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다리의 공식 명칭은 이날부터 '재 S. 문 하사 추모 다리(Staff Sgt. Jae S. Moon Memorial Bridge)'가 됐다.

미 육군 소속이었던 문 하사는 다리가 있는 벅스 카운티 미들타운 타운십이란 소도시에서 성장했다.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에 입대,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가 지난 2006년 크리스마스날 차량에서 폭발물이 터져 전사했다. 당시 문 하사의 나이

는 21세였다.

문 하사에 대한 추모 다리 명명 법안을 발의한 조 호건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의원(공화·142지구)은 “이 지역 출신 중에 당시 테러와의 전쟁으로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인물은 문 하사가 유일하다”며 “다리를 그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은 지역 사회가 그의 공로, 희생 등을 인정하고 영원히 기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하사는 1985년에 한국서 태어

나 전사할 때까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자랐다. 군 복무 후에는 연방수사국(FBI)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다.

문 하사의 여동생인 크리스탈 문씨는 이날 명명식에서 “그때 오빠가 전사하기 직전인 크리스마스이브 날 마지막 통화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늘 미소 짓는 얼굴로 타인을 돕는 것을 좋아했던 오빠는 가족은 물론 모두에게 사랑받던 인물”이라고 전했다.

4면 '다리'로 이어집니다 장영희 기자

## TJ고교, 전국 14위 '추락'

3년 연속 전국 1위, 지난해 5위 이어  
“다양성 중시 입학 절차 변경 탓”

전국 최우수 공립 고교랭킹 1위를 3년간 차지하며 미국 최고 명문 고교로 자리 잡았던 토마스 제퍼슨 과학 고등학교(이하 TJ고교)가, 지난해 5위에 이어 올해는 전국 순위 14위로 추락해 충격적이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를 전국 최고의 학교로 각인시키며 한인 학부모들의 ‘자부심’으로도 통했던 TJ고교의 이같은 ‘순위 추락’은 일말 예상된 결과다.

다양성을 중시하며 “공부 잘하는 아시아계 학생 보다는, 가능성 있는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을 더 받아야 한다”는 페어팩스 교육당국의 2020년도 입학 절차 제도 변경 이후 나타난 변화다.

‘US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2024년도 전국 고교 랭킹 조사에 따르면 1위는 애리조나 페오리아 소재 베이시스 페오리아 고교, 2위는 인디애

나 에번스빌 소재 시그니처 스쿨, 3위는 워싱턴 레드몬드의 테슬라 스템 고교, 4위는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소재 줄리아 마스터맨 세컨더리 스쿨 등이다.

버지니아에서는 TJ고교에 이어 랭글리 고교(맥클린, 전국 148위), 오픈 고교(리치몬드, 전국 161위), 옥튼고교(비엔나, 전국 199위), 맥클린

고교(맥클린, 전국 218위) 등이 2~5위를 기록했고, 메릴랜드 고교 중에는 이스턴 기술학교(탈티모어, 전국 123위), 휘트먼 고교(베데스다, 전국 139위), 폴스빌 고교

(폴스빌, 전국 172위), 우튼 고교(락빌, 전국 196위), 처칠 고교(포토맥, 전국 295위) 등이 최우수 공립학교로 꼽혔다.

한편, US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전국 1만8,000여 공립 고등학교를 조사해 매년 순위를 정해 발표하고 있다. 졸업률, SAT 성적, AP과목 이수 비율 및 각종 커리큘럼 등을 종합 채점해 산정한 결과다. 박세용 기자



## SAT 응시 10% 증가, 점수는 22점 하락

아시아인 점수 최고... 평균 1219점

하버드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대학 입학자격시험(SAT) 점수 제출 규정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 가운데, 응시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캘리포니아가 최근 발표한 ‘2023년도 고교 졸업생 SAT 성적 보고서’에 따르면 미전역에서 SAT에 응시한 학생 수는 191만3742명으로, 전년도(173만 명) 대비, 10% 증가했다.

인종별로는 백인 학생이 75만2632명이 응시하며 전체 응시 학생의 39%

를 차지했다. 그 뒤로 히스패닉(46만 2186명·24%), 흑인(22만5954명·12%), 아시아인(19만4108명·10%) 순이다.

응시자 수는 늘었지만, 점수는 하락했다. 전국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1600점 만점에 1028점으로, 전년도 점수(1050점)와 비교하면 22점이 떨어졌다. 특히 수학 점수가 2022년 521점에서 2023년 508점으로 크게 낮아졌다. 영어 점수는 520점으로, 지난해의 529점에서 9점 떨어졌다.

교육 관계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수업 등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된

후 낮아진 학업 수준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시아 학생의 경우 평균 점수는 1219점으로, 전체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지만 1년 전의 1229점보다는 10점 하락했다. 영어 점수는 596점에서 593점으로, 수학은 633점에서 626점으로 파악됐다. 아시아 학생의 평균 점수는 인종별 점수에서도 여전히 가장 높다.

한편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 수는 12만2914명이다. 거주 학생의 평균 점수는 1082점(영어 546점, 수학 536점)이며, 아시아 학생은 1263점(영어 621점, 수학 642점)이다. 장영희 기자



김정은, 이번엔 초대형방사포 핵위협 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방이시’ (국가 핵무기종합관리체계)의 일환으로 핵반격 가상전술훈련을 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네 발의 초대형 방사포(KN-25)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다. [노동신문=뉴시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종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폐입  
순금 여기 팔리지 않아요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 1석 5조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Life Insurance  
생명보험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5 in 1**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Aetna, MassMutual, National Western Life, Alliant, Columbus Life Insurance Company, ISW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장기 간호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 경찰 숨지게한 그들, 유공자 만들어 준다

야당, 민주유공자법 직회부안 처리 경찰 7명 숨진 동의대 사건 시위자 반국가단체 남민전 관계자도 대상 야당 “의회주의 파괴” 정부위 퇴장



23일 국회 정부위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왼쪽)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셀프 특혜법’ 비판을 받아 온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이 4·10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면서 22대 국회에선 거야(巨野)의 일방적 입법이 더 노골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해관계자의 대립으로 속의가 필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정부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라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자 법사위를 건너뛰는 본회의 직회부 요구 방식을 택한 것이다.

직회부 요구된 안건은 이날 상임위의 대상도 아니었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이 회의 도중 “2건의 안건을 추가 심의해 달라”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요청했고, 같은 당 백혜련 정부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갑작스럽게 심사

대상에 포함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백위원장은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86조 3항을 근거로 들어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두 건 모두 민주당 11명, 비교섭단체 4명(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참석자 1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요건(제적 5분의 3 찬성)을 채웠다. 안건 처리에 반발한 국

민회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해 지원하는 다는 게 핵심이다. 당초 발의안에 교육·취업·대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586 운동권 카르텔 특혜법” “현대판 음서제도” 등의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원 범위를 의료·양로·요양 등으로 축소했다.

그럼에도 대상자 선정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이 법은 부마항쟁보상법, 민주화보상법 등의 대상자(900여 명)를 민주화 유공자로 간주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위에서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그리고 김오랑 중령까지를 포함해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법”(김성주 의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자금을 마련했다고 무장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극구 반대했다.

본회의 직회부 추진이 결정된 이날도 국민의힘 정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

어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감정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혜택을 주는 법안은 자칫 국민 간 형평성을 해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하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이중·삼중의 보상 제도를 이미 충분히 마련한 것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이 다른 민생 경제 법안보다 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당장 원하는 성과는 얻을 수 없을지 몰라도, 이런 흐름이 거듭될수록 유권자들로 하여금 ‘표를 괜히 몰아줬다’ 하는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만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했으나 정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정용환 기자

## 윤 대통령 “이재명 폰번호 저장했다, 언제든 국정 논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해 뒀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화를 걸어 함께 국정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먼저 연락해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며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회동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만남을 협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 의지를 과시하는 일도 부쩍 늘었다. 22일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개할 때도 윤 대통령은 “여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정진석 전 국회의장을 모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야당 대신 ‘국회와의 협력’이란 에드문 표현을 썼던 것과는 달랐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앞으로 야당 의원과 식사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력 없이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걸 윤 대통령도 알고 있다”며 “야당도 이런 노력에 호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관섭 전 비서실장 퇴임 및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취임 인사 행사에

도 참석했다. 이 전 실장은 “여러 가지 과제를 많이 남겨두고 떠나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여러 개혁 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통령님과 함께 노사법치를 확립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소회를 밝혔다. 정 실장은 “사(私)는 멀리하고 공심(公心)만 가지고 임한다면 지금의 난관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첫 실무회동도 열렸으나 회담 날짜와 형식, 구체적인 의제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홍철호 정부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40분가량 만났다. 회담은 당초 25일 개최가 유력하게 전망됐지만, 양측은 “일정보단 의제가 먼



윤 대통령이 행사 뒤 청사를 떠나는 이 전 실장이 탑승하는 차량의 문을 직접 열어주며 배웅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저”라며 “일정과 형식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빨라도 다음 주 초는 돼야 회담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가감 없이 본 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루마니아 방산·원전 협력

MOU=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과 방위산업, 원자력 발전 등 전략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국방협력 협정과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루마니아와 8억5000만 유로(약 1조2500억원) 규모의 K9 쉐너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막판 협상 중이다.

이날 공식 환영식에 김건희 여사와 카르멘 요하니스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합의에 따라 김 여사는 대통령실 외부에서 열린 배우자 간 교류 일정만 비공개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했다가 귀국한 뒤 4개월 넘게 언론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현원훈·김기정·박태인 기자

**워싱턴 날씨 (°F)**

25일(목)	61~45	☀	28일(일)	83~63	☁
26일(금)	66~47	☁	29일(월)	87~66	☀
4월 24일(수)	73~45	☀	30일(화)	83~60	☁
27일(토)	66~56	☁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진료 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의사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지역 렌트비 가장 비싼 곳은?

## 와프 지구 임대료,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앞서

워싱턴DC의 '와프(Wharf)' 지역 평균 렌트비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를 누르고 워싱턴지역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 지역으로 조사됐다.

부동산관리회사 JLL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워싱턴DC 남서부 강변 지역인 와프의 메인 애비뉴 주변 오피스 빌딩 연간 평균 렌트비가 스퀘어피트당 80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워싱턴DC 평균 렌트비보다 63% 더 비쌌다. '와프'의 일부 사무실 빌딩은 95달러를 호가하기도 했다.

워싱턴DC 도심지역 사무실 공실률이 40%에 육박하지만, 와프 지역은 2.5%에 불과했다. 특히 메인 애비뉴의 670, 680, 1000번지 빌딩의 렌트비가 높았다.

와프는 2차에 걸쳐 진행된 개발 프로젝트로, 가장 매력적인 복합타운 지역으로 거듭났다. 현재 이곳에는 비영리단체 프리덤 포럼, 워싱턴 가스, 다임러 노스 아메리카, 디 애틀란틱, 미



사진출처=The Wharf DC 웹사이트

국정신과회사협회, 마이클 베스트 엔 프리드리히 LLP 로펌 등이 자리하고 있다.

와프의 메인 애비뉴에 이어 뉴욕 애비뉴 노스 웨스트, F 스트리트 노스 웨스트, 21번가 노스 웨스트 등의 렌트비가 높았다.

와프의 메인 애비뉴 렌트비는 전국적으로도 10위에 올랐다. 캘리포니아 팰로나 파크의 샌드 힐 로드(167.74

달러), 뉴욕의 34번가(162.43달러), 웨스트 팜 비치의 로얄팜 웨이(134.31달러), 실리콘 밸리의 유나이티드 애비뉴(109.04달러), 페어필드 카운티의 그린위치 애비뉴(105.00달러), 샌프란시스코의 미션 스트리트(90.64달러), LA의 애비뉴 오프 스타스(90.46달러), 보스턴의 애틀란틱 애비뉴(89.96달러), 마이애미의 브리클 애비뉴(86.83달러)의 렌트비가 높았다. 김옥채 기자

만나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VA지부 김남숙 회장

## “어린이들 위해 ‘선함’으로 각성해야”

글로벌 어린이재단 VA지부 김남숙(사진)회장을 만났다.

지난 13일 워싱턴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회원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김 회장은 “선한 영향력”을 강조했다.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작은 사랑, 작은 행복, 작은 관심에 감사하고 주님의 선하심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우리 회원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선행으로 스스로 아름다워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여명이 모인 행사에서는 회원들의 기증품을 바탕으로 ‘미니 옥션’이 진행됐다. 연사로 초청한 한인 아이린 신 주하원의원에게 북버지니아의 정치상황과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도 들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 모임이지만, 회원 모두가 한인 단체는 물론 각종 지역 봉사활동에 앞서는 활동을 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를 교육하고 정치적으로도 일깨우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김남숙 회장은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김혜량 회계보고와 이번에 골프대회장을 맡은 허진 총무의 골프대회 준비 보고 등 순서가 있었다. 끝으로 김 회장은 “골프대회 성공과 일본 총회 참석 등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착착 진행중”이라며 “회원들과 함께 어린이들이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등 돌리려 하며 격려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윤미 기자



## 10주년 맞은 조지 메이슨 한국 캠퍼스

“하나의 대학, 졸업장도 같아요”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 캠퍼스(인천 송도 소재)의 1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페어팩스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시작됐다.

22일에는 자넷 캐머 부총장을 비롯해 교수진, 자문위원단 소속 해롤드 변 이사, 이현정 이사 등 관계자 및 재학생들이 참석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현재 100여명의 송도 캠퍼스 학생들

이 페어팩스 캠퍼스에서 교환학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관계자는 “송도 캠퍼스는 분교가 아닌 본교이며, 졸업생들에게는 ‘송도 캠퍼스’ 명시 없는 조지 메이슨 대학 졸업장이 수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송도 캠퍼스에서는 컴퓨터 게임 디자인, 경영, 경제 등 전공학과가 개설돼 있으며, 여름 학기부터는 로스쿨 석사과정(LLM)도 시작된다.

박세용 기자

## 인터넷 요금 지원 프로그램 종료

워싱턴 지역 70만가구 피해 전국 2300만가구 영향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연방정부 인터넷 요금 지원 프로그램 법률(ACP)이 이달 종료된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연방의회에 법률 사한 연장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의회가 이를 통과시키지 않아 이달 말 모든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인프라법률에 의해 모두 142억달러를 이 프로그램에 지원해 저소득층 가구당 매월 30-75달러의 인터넷 요금을 지원해 왔다.

ACP 수혜 가구의 매월 인터넷 요금 납부액은 7-16달러 정도였다. 전국적으로 모두 2300만 가구가 혜택을 얻었으나 예산지원 중단으로 상당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ACP의 버지니아 수혜 가구는 34만6천 가구, 메릴랜드는 28만 가구, 워싱턴 DC는 8만 가구였다. ACP는 오히려 공화당 출신 의원들이 더 원하고 있다. 주로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많은 농촌지역, 고령인구 거주 지역, 빈곤 지역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의회 전문가들은 수혜조건을 강화하고 지원예산을 70억달러 정도로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혜조건은 연방빈곤선 200% 이내 소득 가구이다. 김옥채 기자

## 조이장로교회 28일 임직예배

조이장로교회(담임 허성무 목사)가 오는 28일(일) 오후 5시, 임직예배를 진행한다.

이날 임직예배에서는 이윤석 장로가 임직을 받게되며 배재연, 이옥희씨가 권사로 취임한다. 최운기 장로가 명예장로, 김명희, 김숙자, 김순옥, 이춘화 성도가 각각 명예권사로 추대된다.

>문의: 703-231-5828

>장소: 4300 Evergreen Ln, Annandale, VA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형사법 전문 변호사

##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 ‘까르보불닭’ 미국서 대박 카디비도 30분 운전 득템

2018년 한국에서 출시돼 큰 인기를 끈 삼양식품의 까르보불닭볶음면이 출시 6년 만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9일 ‘까르보불닭을 손에 넣을 수 있길, 행운을 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까르보불닭 인기를 조명했다.

뉴욕타임스는 “핑크색 포장과 매콤한 내용물로 구성된 한국산 인스턴트 라면이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판매되고 있다”며 “지난 1월 까르보불닭에 대한 구글 검색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일으킨 까르보불닭 관련 영상을 소개했다.

지난달 유명 여성 래퍼인 카디비가 까르보불닭을 즐겨 먹는 영상을 틱톡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카디비는 까르보불닭 영상을 많이 봤다면서 차로 30분을 운전해 까르보불닭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카디비는 치즈와 우유를 넣어 만든 까르보불닭을 먹은 뒤 “재미있는 제품(fun product)”이라고 평했다. 이 영상은 한 달 만에 3200만회 넘게 조회됐다.

뉴욕타임스는 “연예인마저 찾기 힘든 라면의 인기를 입증한 셈”이라며 “이 라면은 한국 식료품점은 물론 아마존, 월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도 판매되고 있지만 인터넷에는 품절 대란으로 구하기 힘들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온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유명 래퍼 카디비가 까르보불닭볶음면을 소개하고 있다. [틱톡 캡처=커뮤니티]

## “VMS 불법 다단계 코인 사기에 속았다”

〈가상자산 업계〉

전직 이사·투자자들 기자회견  
일인당 3천~10만불 이상 투자  
“가치 폭락, 거래 힘들어” 주장  
“피해자 12명 FBI에 수사 의뢰”  
업체대표 “내일 반박 회견할 것”

한인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업체 전직 이사와 투자자들이 사기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LA한인타운에서 가상자산 업체 VMS USA(Vehicle Mining System, 이하 VMS·대표 앤디 박) 전직 이사 4명 등 투자자 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부터 남가주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모집한 VMS는 불법 다단계 폰지사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일인당 3000달러부터 10만 달러 이상을 VMS 코인과 투자상품에 투자했지만, 현재는 해당 코인 가치가 폭락하고 거래가 중단돼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전직 이사인 제이미 김씨는 “남가주에서 활동한 VMS 대표와 부대표인 앤디 박(한국명 박가람)과 그레이스 황은 VMS라는 코인을 만든 뒤, 해당 코인을



22일 기자회견을 연 전직 이사 및 투자자들이 상장 초기 30센트하던 VMS 코인이 0.0002센트로 폭락한 시세(왼쪽 셀폰 화면)를 내보이고 있다. 김상진 기자

미국에 상장시켜 10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며 LA 등 한인들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며 “특히 두 사람은 투자자에게 투자 유지를 하도록 다단계 마케팅을 해 많은 사람이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VMS는 2년 전 시애틀과 남가주에서 투자자를 모으기 시작했다. 업체 측은 차량 운전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특허시스템을 홍보했고,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VMS 코인을 싱가포르 가상자산 거래소 LBank에 상장했다고 한다.

의명을 원한 다른 전직 이사는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앤디 박 대표에게 2000달러를 주면 VMS코인 3000달러치를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LBank 상장 초기 30센트였던 VMS코인은 현재 0.0002센트로 폭락했고 거래도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앤디 박 대표와 그레이스 황 부대표는 VMS 코인 투자자 모집이 힘들어지자 ‘비트코인

컴퓨터 채굴 투자(Mining Staking referral), 솔라패널을 이용한 비트코인 투자(Solar Mining System)로 배당이자(7~14%)를 준다고 수많은 사람을 꼬득였다.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미국에서는 200여명이 일인당 1000달러~1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추산한다. 더 큰 피해를 막고자 지난 19일 피해자 약 12명이 연방수사국(FBI)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전했다.

VMS 앤디 박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우리 회사는 한국과 미국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라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계약서에) 자필 서명도 했다. 지구상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는 주식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을 반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앤디 박 대표는 지난 2019년 중앙일보 시애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현지 한인사회에서 금전편취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박 대표 및 VMS는 중앙일보와 무관하다. 김형재 기자

### 뉴욕 한복판 등장한 K-기사식당

오징어볶음 정식 32달러  
파인다이닝 출신 셰프 운영

뉴욕 맨하탄에 한국식 기사식당이 문을 열었다. 간판도 ‘원조 기사식당’ ‘백반 전문’ 등 한글로 표기했다.

지난 20일 뉴욕 로어리스트사이드에 ‘동남사거리 원조 기사식당’이 개업했다. 이 식당은 파인다이닝 출신 셰프가 운영하며, 세계적인 탐모텔 최소라의 남편이자 사진작가인 이코베가 브랜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에 뉴욕타임스(NYT)가 기사식당의 개업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NYT는 “한국에서는 택시 운전사를 위한 길가 식당을 기사식당, ‘운전자식당’이라고 부른다”며 “소유주인 윤준우, 스티브 최재우, 김용민은 모두 한국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식당은

불고기와 매운 오징어뿐만 아니라 신선한 해산물과 밥, 반찬 등의 백반(가정식) 음식을 제공한다”고 했다.

식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식당에 대해 ‘1980년대부터 택시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해 온 한국의 여유로운 식당’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맛있고 저렴한 식사로 미각과 비용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통 한국 요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36석 규모의 이 식당은 소형 브라운관 TV, 벽걸이 선풍기, 빈티지 패종시계, 한국식 달력 등 복고풍 소품을 활용해 한국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식후에 믹스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피 자판기도 구비했다. 운영방식도 한국 기사식당과 같다. 예약은 되지 않으며 방문 손님 이용 가능하다.

메뉴는 가정식 백반이다. 간장에 절



뉴욕 로어리스트사이드에서 개업한 한국식 기사식당과 음식들(왼쪽).



[구글 맵과 기사식당(Kisarestaurant) 인스타 캡처]

인 불고기, 열무김치, 고사리, 표고버섯, 도라지를 넣은 보리비빔밥, 오징어볶음 등이 쟁반에 담겨 서비스된다. 가격은 한 쟁반당 32달러다. 영업시간은 매주 화~토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근무 후 모임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게 간단한 맥주와 소주 메뉴도

준비돼있다. 한국 태생으로 어렸을 때 애틀랜타로 이주한 소유주 최재우씨는 외식업 전문 매체인 이터(Eater) 인터뷰에서 “이곳 기사식당을 통해 뉴욕에 정통한 식사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 1면 ‘다리’에서 이어집니다  
이 매체는 “문 하사의 아버지도 과거 참전 용사로서 전투 중 다쳤던 인물”이라며 “호건 의원은 유가족들을 만나 문 하사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다가 다리 이름 명명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했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다리 명명식에는 호건 의원을 비롯한 브라이언 핏츠패트릭 주 하원의원, 프랭크 페러 주 상원의원, 애나 페인 미들타운 타운십 수퍼바이저, 벅스 카운티 재향군인회, 뉴욕총영사관

필라델피아 출장소 관계자, 재향군인회 미북중부 지회 회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다리 명명 법안은 펜실베이니아주 상원(SB 621)과 하원(HB 1711) 등에서 잇따라 상정됐다. 이후 SB 621로 법안이 통

합되면서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지난 2012년에는 아프가니스탄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최규혁(당시 34세) 하사의 이름을 딴 다리가 뉴욕주 업스테이트 지역에 생길 바 있다. 장열 기자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버지니아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메릴랜드 메디케어 웨이버 홈케어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5/6 - 5/10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Richmond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소수인종 우대' 위헌 여파... '다양성' 위축

## WSJ, SEC 기업 보고서 분석

그간 다양성을 강조해온 여러 미국 기업이 지난해 연례보고서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을 언급하는 문구를 삭제 혹은 축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1일 국내 수십 개 기업이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지난해 연례보고서(K-10)를 분석한 결과 DEI와 관련한 내용이 지워지거나 축소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유명 백화점 체인 '콜스'는 2020~2022년 연례보고서에서 '다양

한 리더(diverse leaders)'를 양성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다양한'이라는 문구를 지웠다.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는 2022년 연례보고서에서 직원의 50%를 소외 계층 출신으로 채용하고 40%를 여성 혹은 '논 바이너리(non-binary·스스로를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 규정하는 사람)'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명시했으나 최근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수치를 뺐다.

인사 및 재무 관리를 지원하는 기업 워크데이도 2020년 연례보고서에서 직원 가운데 30%를 흑인과 라틴계로 채

우고 이들 인종의 리더 수를 2배 늘리겠다고 적었지만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대학교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것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해당 판결이 내려진 직후 공화당 소속 일부 법무장관은 포천지 선정 100대 기업에 서한을 보내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인종에 따른 특혜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일부 보수 진영은 이전부터 DEI가

능력주의에 어긋나고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받아들였다.

WSJ도 어퍼머티브 액션에 의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소수자 집단을 우대하는 정책을 겨냥한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DEI 프로그램이 법적, 정치적 위협을 받고 있다"며 기업이 다양성 확보와 관련해 균형 잡힌 정책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펀드평가회사 모닝스타 소속 애널리스트 린제이 슈투어트도 "최근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위험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대차, 태양광 신공장 가동 스페인 업체와 147MW 규모 계약



애틀랜타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조감도.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신공장을 태양광 전력으로 가동한다.

현대차그룹은 스페인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매트릭스 리뉴어블스'가 주도하는 신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내년부터 2040년까지 15년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규모는 147MW(메가와트)급이다.

이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체결한 PPA 중 최대 규모다.

계약에는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비롯해 현지 동반 진출한 현대모비스 북미전동화법인, 현대제철 조지아법인, 현대트랜시스 조지아PT법인 등 4개사가 공동 참여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향후 태양광 에너지 조달을 통해 기대되는 탄소 저감 효과는 연간 약 14만 톤(t)으로 추산된다. 이는 준중형 세단 8만4000여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를 흡수하는 것과 동일한 규모다.

현대차그룹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태양광 프로젝트는 매트릭스 리뉴어블스가 텍사스주 벨 카운티에 2025년 10월 상업 운영을 목표로 개발 중인 210MW급 발전시설이다.

현대차그룹은 총발전 용량의 70%인 147MW를 확보했으며, 매년 378GWh(기가와트시)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내 약 1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확보한 태양광 재생에너지는 이번 계약에 참여한 HMGMA를 포함해 현대차그룹 4개사 공장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시민권자와 결혼 불체자 체류 허용 검토'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자에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행정명령 시행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 수혜 대상은 시민권과 결혼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불법 이민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결혼 기간이 5년이나 10년 이상인 체류자로 한정하는 등 일종의 자격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체류



신분 조항이 영주권 발급을 뜻하는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경우 약 11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SJ는 정책 결정이 임박한 것은 아니며 백악관이 대선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시민권자와 결혼했어도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된 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는 영주권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장영화 기자

## 재미과기협 미술대회 개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회장 손용호)는 미국에 거주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K-12)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아트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주제는 'Sailing Around Our New World'이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온라인을 통해 먼저 참가 신청을 한 후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마감은 오는 27일까지다.

참가 자격은 미국에 거주하는 K-12학년 학생으로 부모 1명 또는 보호자가 KSEA 회원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신규 회원은 웹사이트(www.ksea.org/signUp)에서 연회비(35달러)를 지불하고 가입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이메일로 받은 링크를 이용해 작품 사진을 5월 5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 학생 1명당 1개의 작품만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만 허용된다. 디지털 이미지는 접수하지 않는다. 시상식은 5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작품 심사는 ▶K-2학년 ▶3-5학년 ▶6-8학년 ▶9-12학년의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그룹별 전국 수상자들에게는 1등 300달러, 2등 200달러, 3등 1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수상작들은 카밀 월드 버추얼 갤러리(www.ohhh-inc.com)에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steam.ksea@gmail.com

## 1천만명 몰리는 멕시코 최대축제서 "태권!"

1828년 처음 시작돼 2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멕시코 최대 축제에서 '한국의 멋'이 현지인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22일(현지시간)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멕시코시티에서 북서쪽으로 500km 정도 떨어진 아구아스칼리엔

테스에서는 지난 12일 산마르코스 축제가 개막했다.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잔치'로, 올해엔 스팅, 엔리케 이글레시아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플라시도 도밍고, 토토 등 유명 가수와 성악가 등이 무



멕시코 산마르코스 축제서 태권 격파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주멕시코 문화원 제공]

대에 오른다.

약 3주간 1000만명 가까운 인파가 몰리는 이 축제에서 멕시코 한국문화원은 20~21일 처음으로 한류 문화의 장을 마련했다.

태권도 품새 아구아스칼리엔테스주 청소년 대표팀을 초청해 선보인 격파 시범에는 현지인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고 한국문화원 측은 전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움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Baltimore  
(301) 962-8300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아라조물) 웨일리노레방

미락조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을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 트럼프·외국 정상 잇따른 회동에 바이든 측 '부글부글'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외국 정상급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가 22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보수진영 최대 연례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났다. 이동 중 만난 두 사람은 격하게 포옹하며 서로를 반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밀레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트럼프 전 대통령 캐치프레이즈)다.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을 아주 잘할 것이다. 당신이 여기에 참여해서 큰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밀레이 대통령 역시 트럼프 전 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제공)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제공)

통령에게 "만나게 돼 영광이다. 정말 행복하다" 며 사의를 전했다.

두 사람의 만남이 미리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연설만 하기로 돼 있었지만 CPAC 주최 측은 트럼프 전 대

통령이 그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실제 만남이 성사 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회동 장면을 담은 영상을 배포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만남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약시오스는 전했다.

마크 스탠리 주아르헨티나 미국 대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비공개 행사에서 아르헨티나 외무장관과 면담하고 다른 국가가 미 국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과도 적극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뉴욕 맨해튼 트럼프 타워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8일에는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을 만났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의 전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미래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친러시아 성향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마라라고를 방문했다.

당시 오르반 총리는 자신의 인스타

그램 계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나는 장면, 그와 걸어가며 멜라니아 트럼프 전 영부인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장면 등을 올렸다.

영상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행들에게 "그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인물"이라며 "그가 보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뉴욕을 방문 중인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도 23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회동은 아소 전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 대비해 관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초청은 거절했다.

제이슨 밀러 트럼프 캠프 선임고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우크라이나로 초청해 회동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당장은 적절치 않다"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 “삼촌, 2차대전중 식인종에 먹혀” 바이든에 파푸아뉴기니 발끈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2차 대전에 참전한 자신의 삼촌이 남태평양 섬나라인 파푸아뉴기니에서 식인종에 먹혔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CBS방송은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가 바이든의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은 지난주 펜실베이니아 전쟁 기념관에서 연설을 하면서 2차대전에 육군 항공대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숨진 자신의 삼촌 고(故) 엠브로스 피네건 소위를 거론했다. 그는 "삼촌이 탄 항공기는 적군의 공격을 받아 파푸아뉴기니에 떨어졌다"면서 "추락 현장에 식인종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삼촌의 시신이 식인종에게 먹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바이든 대통령은 전선에서 목숨을 던진 자신의 삼촌과 참전 용사들의 용맹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파푸아뉴기니 총리 제임스 마라페

하지만 결국 마라페 총리는 바이든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21일 성명을 내고 "바이든이 말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2차대전은 우리 국민들이 저지른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 군도에는 전몰 장병 유해와 파손된 군용기 및 군함이 대거 흩어져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2차대전 당시 떨어진 불발탄이 터져서 죽을까봐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파푸아뉴기니 정글에 남아있는 전사 장병들의 유해를 찾고 전쟁의 잔해를 치우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미국 입장에서 파푸아뉴기니는 남태평양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호주는 지난해 5월과 12월에 각각 파푸아뉴기니와 안보협정을 맺었다.

## 뉴욕증권거래소 '24시간 거래' 검토하나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시장참여자들을 상대로 24시간 실시간 거래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설문조사는 최근 한 스타트업이 미국 주식에 대한 사상 첫 연중무휴 증권거래소를 하겠다고 금융당국에 승인을 신청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NYSE 경영진이 아닌 데이터 분석업체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24시간 주식 거래에 대한 논의는 가상화폐가 연중무휴로 거래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봉

쇄 조치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미 국채와 주요 통화, 주요 주가지수 선물 등도 평일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며 증권시장만 뒤쳐진 상태라는 것이다.

현재는 온라인주식 플랫폼 로빈후드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등이 미국 주식에 대해 내부 보유물량 거래 또는 아시아 개인 투자자들과 그들의 낮에 거래하는 블루오션과 같은 다크풀(Dark Pool·장의 익명 거래) 거래소를 통한 거래 서비스를 평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다크풀과 달리 규제가 엄격한 일반 증권거래소가 야간 거래를 하는 것은 다음날 정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 게다가 증권거래소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직접 감독을 받고 있어 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안정성과 보안 관련 심사도 받아야 한다.

NYSE의 이번 설문지에는 24시간 거래가 평일 5일 뿐 아니라 주말에도 이뤄져야 하는지와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야간시간대 직원 배치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 EU 외교수장 "이스라엘, 라파 공격말라"

호세프 보렐(사진)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지 말라고 재차 촉구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라파 길거리"에 130만명 이상이 피란처도 없이 살고 있다. (공격에 따른) 인도주의적 결과는 재앙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도 명백히 확전 가능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호세프 보렐

성이 있었으나 동시에 가자지구가 겪는 심각한 고통을 잊어서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만 4천명 이상이 이미 죽었고 (가자지구 의) 75%가 난민이 됐고 기근에 직면해 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도시들보다 더 많이 파괴됐다"고 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인도적 지원 통로를 확대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이달 초 발표를 언급하면서 "발표가 아닌 실제

이행이 중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아직도 인도적 지원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규모도 적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각적인 인도적 교전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약 12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최근 이스라엘 정부에 외국 언론사 운영을 막을 수 있는 임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법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외국 언론사의 접근이 제한됐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DAON GROUP LLC**  
TAX & ACCOUNTING SERVICES

# 다운 회계법인



- 회계 업무
- 신규사업 등록
- 세무감사 대변
- 세무 보고
- Payroll Service

\* Text, Fax, Email 로도 세금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조동구 공인회계사  
Eddie Cho, CPA

VA Text / Phone : 703-637-2006  
7535 Little River Tpke. #325B  
Annandale, VA 22003

MD Text / Phone : 410-787-9077  
8600 Snowden River Pkwy. #300  
Columbia, MD 21045

Fax: 410-787-6686 Email: echo@daoncpas.com, eddiechocpa@gmail.com

# 4월 메디케어 공개 강좌

버지니아 4월 25일(목) 11시  
8300 Boone Blvd., #500  
Vienna, VA 22182

메릴랜드 4월 26일(금) 11시  
10320 Little Patuxent Pkwy, #200  
Columbia, MD 21044

메디케어 일타 강사 - 소그룹 상담도 환영

메디케어 카드 신청 (1959년생)부터 플랜 등록까지 복잡해 보이는 메디케어, 쉽고 간결하게 알려 드립니다. 저도 메디케어 해당자입니다.

제 보험을 찾는 마음으로 도와 드립니다.

염은호 종합 보험  
(571) 232-5022  
8300 Boone Blvd #500, Vienna, VA 22182



# “햄버거 사치품 됐다... 줄도산 압박” 최저임금 20달러 쇼크

최저임금 급등으로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 햄버거 세트 가격이 2만원 대를 훌쩍 넘어 “사치품 화돼 가고 있다”는 토로까지 나올 정도다. 당장 다음달부터 최저임금 인상 논의의 시작하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달 1일부터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특별법을 적용 중이다. 다른 요식업체와 달리 ‘팁(추가 사례금)’을 받지 못하는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가장 낮다는 판단에서 나온 법이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점 종사자의 최저 시급은 15.5달러에서 20달러로 올랐다. 이는 미 연방정부의 최저 시급인 7.25달러의 약 2.8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많은 주가 연방 정부보다 높은 액수의 최저 시급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가 촉발한 최저임금 인상이 미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인상이 식품 가격을 넘어 고용 문제 등 소비자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패스트푸드 가맹점들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해 9월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지지자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다.

음식값을 올리고 직원을 줄이는 고육책에 나섰다.

데이터 조사분석 업체 칼리노프스키 에퀴티 리서치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의 음식값은 5~9% 정도 올랐다. 웬디스는 8%, 치폴레는 7.5%, 타코벨은 3%. 버거킹은 와퍼 등 주요 제품 가격을 2% 인상했다. 맥도날드 점주 협회도 올해 추가 인건비 상승 폭이 점포당 연간 2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제품 가격을 2% 가량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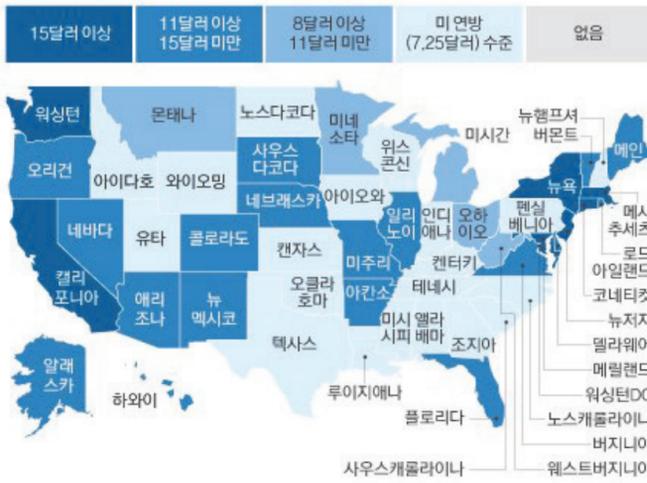
또 운영비 절감을 위해 직원 유급 휴가를 없애고, 매장 내 시설 투자 축소 등을

지시하는 업체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8개의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는 스콧 로드리고는 “에어컨 가동 시간을 줄이고, 식당 조명의 조도를 조절하는 등 한푼의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비즈니스인사이드에 말했다.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인 자동화 주문시스템(키오스크) 도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 미 전역에서 180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하시 가이는 CNN에 “캘리포니아주 내 매장에는 향후 1~2달 내로 모든 레스토랑에 키오스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기야 햄버거를 즐기던 서민들이 가격 부담 탓에 패스트푸드점을 찾지 않는 악순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일

## 2024년 미국 주별 최저임금 현황



자료: 미국 노동부

The JoongAng

례로 하나에 1달러 안팎이었던 맥도날드 해쉬브라운의 가격이 3달러 가까이 오르면서 SNS에선 가격 급등을 비꼬는 듯한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이 돈을 지불하느니 돈을 더 내고 종업원의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다이닝 캐주얼’을 이용하거나 ‘집밥’을 더 자주 먹겠다”는 식이다.

점주들 사이에선 “줄도산이 임박했다”는 볼멘 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쥘 코디 캘리포니아 레스토랑협회 회장은 “일부 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확장하지 않거나 매장을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CNN에 말했다.

데이비드 엘리 샌디에고 주립대 경영대 교수는 지역 신문에 “임금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압력은 비단 패스트푸드 업계 뿐 아니라 다른 외식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 고용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라지즈 알사우드(39·약칭 빈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미래형 신도시 ‘네움시티’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네움시티 건설 비용이 당초 약 5000억 달러보다 3배 이상 늘어나면 서 중동의 석유 부국 사우디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다.

이달 초 블룸버그 통신은 사우디가 서부 홍해 인근에 건설되는 네움시티의 핵심사업 ‘더 라인’ 신도시 계획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서쪽 사막에 폭 200m·높이 500m·길이 170km의 거대 유리 벽 도시를 만들어 인구 150만명을 거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현재 개발 속도로 보면 더 라인은 길이 2.4km에 수용 인구는 30만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계획과 비해 규모가 줄면서 ‘네움시티는 허상’이라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 라인의 경우 롯데월드

## 빈살만의 ‘네움시티’ 신기루되나

건설비 687조원서 3배 이상 급증  
석유부국 사우디도 감당 힘들어  
외신 “계획보다 규모 줄일 것”  
길이 170km서 2.4km로 축소설

타워(높이 555m)와 비슷한 초고층 빌딩 2개를 서울~대전(약 140km)보다 긴 거리에 일직선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건축 전문가 대부분은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홍해에 조성되는 수상 산업단지 ‘옥사곤’, 고원지대인 자발 알-라우즈산에 개발되는 관광단지 ‘트로제나’ 등도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네움 측은 인공지능(AI) 기술로 기후를 제어하고 탄소 배출은 전혀 없는 친환경 에너지를 추구하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로봇 공룡, 인공 달 등을 최첨단 과학기술이 적용해 구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꿈에나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오른쪽)가 계획한 네움시티 ‘더 라인’ 상상도. [네움 홈페이지 캡처]

나올 법한 유토피아”라고 꼬집었다.

자금 부족도 걸림돌이다. 네움시티의 주요 재원인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최근 형편이 좋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PIF가 지난해 9월 기준 보유한 현금은 150억 달러에

그쳤다. 2022년 약 500억 달러를 보유했던 것과 비교해 70% 급감했다.

때문에 어마어마한 ‘오일 머니’를 자랑하는 사우디에게도 세상에 없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전문 학적인 자금 마련이 만만치 않을 것이

란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네움시티를 실제 완성하는 데는 기존보다 2배 이상 많은 1조 50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올해 예산의 3배 이상이다. 이와중에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 영향으로 네움시티 건설 현상으로 오는 자재 물류비용까지 증가했다.

자금난 해결을 위해 네움 측은 해외 투자 유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프로젝트 자체는 진행되었지만 규모를 다소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기관은 수십조원 달하는 네움 프로젝트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네움과 관련한 본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현대건설·삼성물산 정도다.

유광호 전문연구원은 “우리 기업들도 여러 리스크를 고려했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우디 재정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여천 길건너편)

# 북한 3대 해킹조직 합동공격, 국내 방산업체 10곳 뚫렸다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경찰 “협력업체 등 허점 노려 탈취”  
이전엔 조직별로 분야 나눠 해킹

북 “초대형방사포로 핵반격훈련”  
김정은, 한국 겨냥 핵위협 노골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2일 진행된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에서 초대형 방사포(KN-25)가 목표물인 동해 무인도에 명중하는 모습을 가리키면서 웃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3대 해킹조직이 합동으로 80여곳이 넘는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해킹 공격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해킹조직들의 합동 공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3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이 1년 6개월여 전부터 국내 방산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합동으로 해킹에 나섰고, 국내 방산업체 83곳 중 10여곳이 해킹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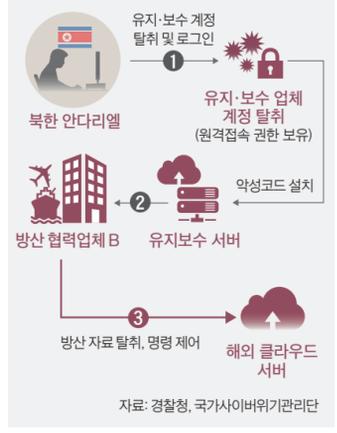
국수본 관계자는 “기존에 김수키는 정보기관과 정치인, 라자루스는 금융기관, 안다리엘은 군과 국방기관 등을 주로 공격하도록 역할 분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하나의 목적을 두고 비슷한 시기에 함께 전방위적으로 공격했다는 사

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이들 해킹조직들은 방산업체에 직접 침투하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방산 협력업체를 해킹해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한 후 주요 서버에 무단 침투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수법을 썼다. 라자루스는 2022년 11월쯤부터 방산업체 A사의 외부망 서버를 해킹해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테스트 목적으로 열려있는 망 연계시스템의 포트를 통해 회사 내

부망까지 장악했다. 이후 개발팀 직원 컴퓨터 등 내부망 컴퓨터 6대에서 중요 자료를 수집해 국외 클라우드 서버로 빼돌렸다.

안다리엘의 경우 2022년 10월쯤부터 방산 협력업체 B사 등을 원격으로 유지·보수하는 C사의 계정정보를 탈취해 B사 등의 서버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방산기술 자료를 빼냈다. 김수키는 2023년 4~7월 방산 협력업체 D사의 이메일 서버에서 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 북한, 어떻게 방산자료 빼돌렸나



자료: 경찰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것으로 나타났다. 국수본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2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이른바 ‘핵 방아쇠(국가 핵무기 종합 관리체계)’에 따른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국가 핵무력의 신속 반격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의 운용 훈련을 했다”며 초대형 방사포(KN-25) 네 발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동시에 발사되는 장면을 공개했다.

‘핵 방아쇠’는 지난해 3월 북한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당시 전술핵탄두인 ‘화산-31형’을 공개하면서 “핵 방아쇠는 다각적인 작전 공간에서 각이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통합 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같은 달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이용해 첫 핵반격 훈련을 했다. KN-23과 KN-25의 사거리를 감안할 때 남한을 핵 공격 대상으로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근평·이유정·김심기 기자

미국이 러시아의 무역 거래를 지원하는 중국 은행을 겨냥한 제재안을 마련 중이란 외신 보도가 23일(현지시간) 나왔다. 이와 관련, 24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를 중국에 대한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일부 중국 은행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는

## 미국, 러시아 교역 돕는 중국은행 제재 추진

제재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의 최고 특사(블링컨 장관)가 이런 외교적 영향력으로 무장해 중국이 러시아의 무기 생산에 대해 상업적 지원을 중단시키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미 당국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군사

### WSJ “세계 금융시스템서 차단 검토” 중국 “우리에 책임 떠넘기냐” 반발

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상품 수출을 꾸준히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로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회로와 항공기 부품, 기계 및 공작기계 등이 수출품으로 지목됐다. 일부 중국 은행은 이런 상

품의 수출 과정에서 핵심 중개자 역할을 하며 대금 결제를 처리하고 무역 거래에 대한 신용까지 제공했다는 게 미국 측의 판단이다. 소식통들은 “외교적인 제재처로 중국이 수출을 억제하도록 설득하지 못할 경우 이런 은행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이 확대 옵션”이라고 신문에 말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이달 초 베이징에서 “군사 또는 이중용도 물품을 러시아 방위산업 기지에 전달하는 중요한 거래를 촉진하는 모든 은행은 미국의 제재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불에 기름을 부으면서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가짜 수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김상진 기자

미군이 보유한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빈 무기고를 새 장비로 채우면 미군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국방 전문가인 매켄지 이글렌은 지난 22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미국 의회가 처리하려는 추가 안보 예산안에 대해 “이 예산은 사실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과 장비들에게 오래전에 해야 했던 투자다”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안보 예산에는 미국이

##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의 진짜 수혜자는 미군…노후장비 현대화 효과”

우크라이나 등에 지원한 무기 재고를 보충하는 용도로 295억달러가 책정됐으며, 이 예산의 4분의 3 이상이 미국에서 소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은 무기를 생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미군이 보유한 기존 무기를 먼저 우크라이나에 보낸 뒤 미군이 필요한 무기는 새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다.

이글렌 선임위원은 이런 지원 방식을 두고 “미 육군에게 도움 되는 업



미군의 브래들리 보병전투차량

레이드”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 육군이 오랫동안 장비 현대화를 미뤄온 탓에 갈수록 질보다

양에 의존하는 “노후화되고 속이 빈 전력”으로 전락했다면서 추가 안보 예산 덕분에 냉전 시대 장비를 현대 장비로 교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군이 50여년 전 베트남 전쟁 때 사용한 뒤로 육군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던 M113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덕분에 신형 장갑차를 구매하게 됐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988년에 처음 도입한 M2A2 브래들리 보병전투차량을 최

신 버전인 브래들리 A3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의 구형 버전인 PAC-2를 PAC-3로 교체하게 됐다.

모두 미군 입장에서 오래됐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더 열악한 무기로 무장한 러시아군을 상대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무기들이다.

이글렌 선임위원은 “우크라이나에 장비를 이전한 덕분에 미국이 국방 예산의 3%로 러시아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육군의 낡은 무기를 현대화할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이것은 서로 이익(win-win)”이라고 말했다.

##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 희스프링 아동가족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퍼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703-259-5617, 410-241-2520**

www.GIANTREALTY.com

# 자이언트 부동산

- 부동산 전문지식
- 협상능력
-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 “누구라도 할말하는 분위기 만들어야, 그게 상급자 역할”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건 서울이 ‘시골벽적’해서였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 공공영 ‘순목닥터9988’ 가입자도 77만 명을 넘어섰다. 48년 만에 창단한 공공발레단인 서울시발레단이 첫 공연(26일)을 앞두고 있고 히딩크 전 감독이 서울시향 해외홍보대사를 자처했다. 동행·매력이란 그의 비전이 낳은 변화다.

4·10 총선에서 그가 속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에 그에게 총선 민의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총선 전후로 두 차례 만났다. 평소 정치적 발언을 삼가던 그가 16일엔 큰 걱정을 내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러 일로 지지층을 축소했다”라거나 “정책 전달력이 약했다”고 진단하며 “어떤 참모라도 할 말을 부담 없이 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선거 전략 부재도 지적했다.

-총선 민심 어떻게 보나.

“매서운 질책이었다. 전문가들도 지지층 축소를 자초한 (여러) 측면을 지적하더라. 이념 다툼은 야당의 몫인데, 미래지향적인 정책 펼쳐야 하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예를 들어 흥분도 장군 논란 같은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 저도 무슨 실적이 있나 했다. (대통령도) 대통령 리더십이 그렇게 비치고 바라진 않았을 것이다. 일로 승부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비치면서 지지기반을 무너뜨렸고 선거 결과로 민심이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했다.”

영국·일본처럼 ‘사회적 고립 전담부서’ 설치  
-윤 대통령의 경우 이념 외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사실 (정책 주도와 관리에서) 디테일에 좀 약한 것 같다. 똑같은 정책을 펼쳐도 앞뒤를 가다듬는 프로세스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동시에) R&D 예산이 굉장히 누수가 심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기 시작해 한 번 정도는 경고해야겠다는 인식도 한다. 엄중히 조사해 이런 일이 만연하지 않도록 메스를 대겠다고 하고 R&D 예산을 삭감했다면 국민도 박수쳤을 것이다. 그 충정은 어디로 가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몰라서 삭감한 대통령이 돼 있는 거다. 담당 공무원부터 참모까지 프로세스 관리를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통령의) 본심이 전달 안 되면서 불통 이미지까지 만들어진 거다. 그분의 리더십 스타일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떤 참모라도 하고 싶은 말을 부담 없이 할 수 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도서관 계단식 열람실에 앉아있다. 그는 매주 목·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책읽는 서울광장’을 기획했다.

김상선 기자

는 분위기는 꼭 필요하다. 많이 알려진 게 앞에 가면 얼어붙는다고 하지 않나. 누구라도 말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상급자의 책임이다. R&D 예산 논란도 그 결과로 볼 수 있다. 누구라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었다면 토론을 통해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국무회의엔 오 시장도 있었다.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에서 절절하게 들었다. (공개 발언 이후) 국무회의 끝부분에 공무원과 참모들에게 우리가 반성할 점이 무엇인지 각별히 당부하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녹여내자고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성과에 대해 여러 내에서 논쟁이 있다.

“애썼고 고군분투했다. 대안 없는 상태에서 차출됐고 본인도 이 국면에서 등장을 원치 않았을 텐데 등관했다. 자기희생이다. 선거전략 측면에선 상대방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측면이 있다. 정권 심판론은 당연히 등장하는 과거 지향적 프레임인데 586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음으로써 스스로 그 프레임으로 들어갔다. 전략의 부재다. 집권세력은 미래를 얘기하는 게 맞다. 약자동행도 얘기했으면 했다. ‘경제가 발전하면 뭐냐, 나한테 오는 혜택이 없는데’라는 국민이 많다. 이들에게도 집권당으로서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했는데 선

명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양쪽이 서로 심판론 하다가 끝났다. 선거 전략론적 상책은 아니었다.”

-오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시선이 늘었다.

“지자체장이 중앙정부나 중앙정치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시장)가 정치가 아닌 일하는 자리란 나름의 원칙을 갖고 있다. 세 마디 할 거 한마디 하고 열 마디 할 거 한마디 한다. 저 역시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판만 할 수 없다. 일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그래도 여의도에선 연락이 많이 오지 않나”라고 했더니 “다 (서울시) 지원 사업 때문”이라고 했다. 대화 주제를 서울시로 옮기자 그가 분명한 언어로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승만기념관은 송현동에 짓나.

“건립추진위원회가 절실하게 원해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건 맞다.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의 성격상 중앙



지난 1일 서울시향 홍보대사로 위촉된 히딩크(오른쪽)와 함께 한 오 시장. [사진 서울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매력도시’를 내세워서인지 부쩍 문화를 강조한다.

“10년 전에는 문화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컬처노믹스’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제 문화 자체가 삶의 목적인 것 같다. 요즘엔 ‘편 시티’라는 말을 한다.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퀄리티 라이프’를 즐기는 시민이 많아지면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동행카드를 문화의 발이 되게 하려고 각종 문화시설 할인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최근 서울시 발레단 창단식에선 ‘꿈이 이뤄졌다’고 했다.

“약자와의 동행에 꽂혀있다 보니 그렇다. 우리 발레는 상류층만 즐긴다. 문화예술이 특정계층 전유물이 되면 곤란하다. 시립이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문턱을 낮춰줬으면 한다.”

오 시장은 변호사 시절 국립발레단 공연에 출연한 적 있는데 요즘엔 성악 레슨을 받는다고 한다. “지난해 서울시 오페라단 ‘투란도트’에서 테너 이용훈에 반해 ‘네순 도르미’를 배우고 있다. 마지막 ‘빈체-로~’ 고음처리가 안 돼서 죽을 듯 살 동한다”며 웃었다.

-그간 우리 문화 현실도 많이 달라졌다. “런던에 있을 때 젊은이들이 ‘강남스타일’을 부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후 한류의 차원이 달라지는 걸 보며 책임과 의무를 느꼈다. 발레단 창단이 나 시장 업그레йд도 토양을 비옥하

게 하는 투자 차원이다. 전통문화가 스며들도록 조선팔 공연, 국악관현악축제도 시작했다. 지난해 뉴욕에서 성공한 서울시무용단의 ‘일부’는 마치 K팝 칼군무의 원형으로 보일 텐데, 한국 문화예술이 전통에서 현대로 이르는 맥락적 해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다. 한류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 잠재력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해석되게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다.”

성악 레슨받는데 고음 안돼서 죽을 듯 살 동 그는 최근 ‘매력’이란 비전을 ‘건강도시’ ‘정원도시’로 확장하고 있다. 정원 도시는 누구라도 10분에 도달할 수 있게 3년 내 미니정원 1007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자투리땅이라도 끌어모으겠다”고 말한다. 과거 오페라하우스를 두려던 노들섬 계획은 달라졌다. 그는 “오페라하우스는 한강 한가운데 들어가기엔 좀 과했다. 전임 시장의 시설물을 놔둔 상태에서 친환경적이면서 즐길만한 공간으로 수정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건강도시”와 관련한 오 시장의 설명은 이렇다. “심신이 건강해야 행복도 따라오고 건강보험공단 예산도 절약된다 (웃음). 어떻게 하면 시민이 스스로 재미 삼아 운동하게 할지, 아이디어를 짜고 있다. 매력도시란 게 다 연결된 거다. 도시가 매력 있어야 돌아다니며 운동할 것 아니냐. 기후동행카드부터 순목닥터 9988, 정원도시, 돌레길 사업 등 최근 일련의 정책들에 시민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자는 도시의 비전 체계가 작동하고 있고,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서울시에 사회적 고립 전담부서(돌봄·고독정책관)를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영국의 ‘고독부’, 일본의 ‘고독고립 대책 담당’과 유사한 것이다. 그는 “동네에 자원봉사 모임이나 문화동아리, 건강관리 스포츠 모임 등을 만들어드리는 거다. 현대인은 관계의 설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모임에 해법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대선보다 서울시장 5선에 관심 있다고 한 적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를 물었다니 이렇게 답했다. “반반이다. 선출직은 국민의 부담을 늘 해야 하지만 지금은 일에 깊이 빠져있다. 오세훈 때문에 서울이 살 만한 곳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실제로 한강 르네상스로 만든 산책길이나 산자락에 만든 돌레길이 없었으면 코로나 때 어쩔 뻔했나. 일을 잘하면 다음 스케줄은 부수적으로 따라올 거다.”

고정애·유주현 기자

##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3%

85세

\$406,309

25년후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Ex: 현 60세 남성 - Cash Indemnity 방식 (매월 은행 계좌로 정기간호 비용이 입금)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리스버그 싱글홈	레스틴 콘도	로턴 타운홈	클리프턴 싱글홈
\$1,110,000	\$426,000	\$580,000	\$84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된 집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йд 많이함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http://www.HANKOOKMOTORS.COM)

#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 “첫 영수회담, 성과 집착 안 돼… 민생·의료부터 풀어가야”

문화상 노무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

김우식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

이달곤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

허태열 박근혜 정부 초대 비서실장

김재원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

“첫째도, 둘째도 사전 의제 조율...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합의하라”



“여사 문제, 사법리스크 거론 말고 민생·안보·의료 문제 대화 물꼬 터야”



“회담 전 참모진에게 쓴소리 요청했던 MB처럼... 대통령도 여러 의견 경청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협치 상대로 인정하고, 이 대표는 점령군 같은 태도는 안 돼”



“한 칼에 국면전환하려 하지 말고, 국정 동력 위한 해결 가능 문제부터 선별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과 제1 야당 수장의 만남을 계기로 꽉 막힌 정국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간 상대방을 철저히 적으로 몰아갔기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은 어땠을까. 역대 정권의 비서실장·정무수석으로부터 성공적 회담을 위한 해법과 과제 등을 들었다.

## 잘 준비해도 어긋나는 게 영수회담

우선 “첫 만남부터 너무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았다. 김대중 정부 초대 정무수석이자 노무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화상 전 국회의장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막상 만나면 모든 게 어긋나는 게 영수회담”이라며 “사전 의제를 치밀하게 조율해야 작은 성과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테면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도 한 가지 대안”이라며 “특히 현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강하게 밀고 있으니 더 더욱 야당과의 협조는 필수다. 3대 개혁 협의체 구성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94년 3월 이기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김영삼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배석한 일화도 전했다. 문 전 의장은 “당시 회담이 잘 풀리지 않자 회담장을 나온 이기택 대표는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욕설을 했다”며 “그만큼 영수회담은 쉬운 자리가 아니라 첫술에 배부르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이었던 김재원 전 의원은 “첫 회담에서 한 칼에 국면 전환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 합의 가능한 작은 문제부터 냉정히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6년 9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설득을 위해 진행된 박 대통령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회동 일화도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배치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지만, 야당 대표의 반대로 분위기가 상당히 건조했다. 하지만 안보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기에 박 전 대통령은 대화에서 전

## 역대 비서실장·정무수석의 조언

문화상 “대화채널 유지하는 게 중요”  
김우식 “깨지 못할 협상원칙 정해야”  
이달곤 “대통령, 참모 쓴소리 경청을”  
허태열 “서로를 협치 파트너로 봐야”  
김재원 “이재명, 회담 정쟁화 자제를”

혀 밀리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 열리는 회담이기에 야당 요구를 일정 부분은 들어줘야 한다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김우식 전 부총리는 “성과에만 집착하면 국민 눈에는 성급하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며 “깨지지 않을 협상 원칙부터 정하고 민생·의료 문제, 넓게는 외교·안보 문제까지 점점을 늘려가야 한다”고 조

언했다.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 모두 딱딱한 형식이나 힘의 우위를 앞세워서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문화상 전 의장은 “노 전 대통령은 야당 인사와 대화할 때 달변가 면모를 보이면서도 때로는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확실히 숙여 해묵은 갈등을 툭툭 털어냈다”고 전했다.

김우식 전 부총리는 “이재명 대표는 첫 회담에서 김건희 여사 등 예민한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국운이 달린 현안이 산더미인데 여사 문제 등은 작은 문제”라며 “회담이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는 힘겨루기가 되면 양측 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노무현은 야당에 고개 숙여 갈등 해결

박근혜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던 허태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두지 말고 국정 난맥을 풀어낼 협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 대표 역시 총선 승리를 등에 업고 점령군 같은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허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패배 직후에 회

담하는 불리함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항장(항복한 장수)의 태도를 요구하면 대화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회담 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참모진의 쓴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양측이 상대방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면 회담이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05년 9월 영수회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대연정 카드를 내밀었다가, 박 대표가 거절해 2시간 반의 영수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일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회담 전 참모들에게 ‘가감 없이 말해 달라’고 요청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실도 쓴소리를 레드팀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원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은 유혹이 상당할 것”이라며 “당내 강성파의 목소리에만 휘둘리지 말고, 합리적인 내부 비판부터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국희·강보현·전민구 기자

# 윤 대통령 오찬 거절한 한동훈...지난주 비대위원들과 만찬

총선 마무리 회동한 사실 드러나 참석자 “한, 내공 쌓겠다고 말해”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때 자신과 함께 당을 이끈 전 비대위원들과 최근 만찬을 함께했다.

한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들과는 만났지만 이후 대통령실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은 확산하고 있다. 23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전 비대위원 전원과 2시



간가량 식사를 함께하며 선거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나눴다고 한다. 이번 만찬은 몇몇 전직 비대위원이 총선이 끝나고 한 전 위원장에게 식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고 지난 11일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 집거해 온 한 전 위원장의 첫 외부 일정이었다.

한 전 위원장은 식사 자리에서 과거 검사 시절 좌천됐던 때를 언급하면서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 “내공을 쌓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느낀 아쉬움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선거 때와

달리 약한 모습이 많이 보였다”며 “특히 선거 기간 관세가 좋지 않다는 여론 조사 보고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비롯해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들과의 만찬 회동 사흘 뒤인 19일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오찬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한 전 위원장은 21일 “지난 금요일(19일) 오후, 월요일(22일) 오찬이 가능한지 묻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았다”며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한 전 위원장이 당내 측근은 만나면서도 윤 대통령과 회동을 거절한 모양이 되자 ‘윤석열-한동훈’의 정치적 결별이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오찬 불발에 대해 “대통령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 전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권영세 의원)거나 “윤-한 갈등” 표출은 적절치 않다. 오찬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김용태 당선인)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정치적인 행보를

생각할 만큼 심적인 여유도 없고, 건강 회복에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정치적인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엔 페이스북에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장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지난 15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정치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만, 당장 전 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0’에 수렴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당 사무처 당직자 등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 기자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정선화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 ‘OECD 1위’ 노인 빈곤율, 부동산 연금화 땀 14~16%p ↓

한은 “노인 주택연금 가입 유도 필요”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보다 덜 가난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70)씨는 통계상 ‘빈곤층’ 노인이다. 그는 은퇴한 뒤 연금을 포함해 월 100만원가량의 소득으로 살아간다. 통계에선 가구 중위소득(중간값)의 50%(약 144만원, 2022년 기준) 이하 가구를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김씨가 사는 집은 12억원이 넘는다. 대출도 없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을 보면 빈곤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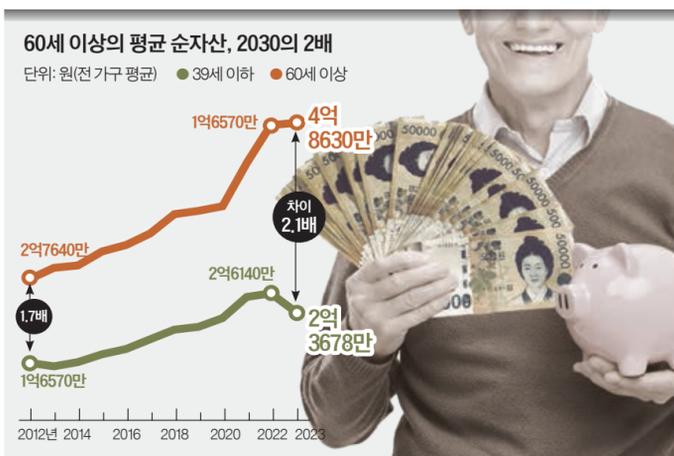
국민연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 때 흔히 소득을 기초로 한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통계를 근거로 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이 40.4%다. 회원국 노인 빈곤율 평균(14.2%)의 3배 수준으로 압도적 1위다. 에스토니아(34.6%)·라트비아(32.2%)가 뒤를 이었다. 미국(22.8%)·일본(20.2%)은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의 연금 제도는 미성숙하며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젊은 시절 번 돈을 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2.4% 수준이다(2022년 기준). 미국(38.7%)과 차이가 크고, 유럽(60~70%)보다 높다. 지난해 3월 기준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순자산(자산-부채)은 4억8630만원으로 나타났다. 40대(4억3590만원)보다 많고 50대(4억9737만원)와 비슷하다. 30대 이하(2억3678만원)의 2배 수준이다.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노인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노인 빈곤율 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빈곤율 통계를 마련해야 연금 개혁안도 정교해진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자산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7~8%포인트, 자산을 팔거 연금으로 받는다 가정하면 기존보다 14~16%포인트까지 빈곤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펴낸 보고

서에서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쓸 돈이 없는 고령층에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젊은 노인”일수록 덜 가난한 측면도 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2014년 47.1%에서 2021년 37.7%로 낮아지는 동안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65~69세) 빈

곤율은 같은 기간 33.1%에서 21.7%로 줄었다. 빈곤율이 노인 평균 대비 16% 포인트가량 낮다. 1950년대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 고속성장과정에서 자산을 불렀고,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한 측면이 반영됐다.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주요국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2022년 기준 60세 이상 중 소득 상위 20% 가구가 평균 연 1억6017원을 버는데, 하위 20%는 1369만원에 그쳤다. 전 연령대 중 5분위 소득은 가장 높고, 1분위 소득은 가장 적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50년대 이전 출생 세대에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50년대 이후 세대에는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며 “기초연금 재원을 다른 노인 복지제도에 투입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 국회로 온 연금안...여 “청년·나라 미래 암울” 야 “여당, 무책임한 선동”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시민대표단의 속의 토론 판단이 나왔지만, 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시민대표단 다수(56%)가 선택한 1안(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각각 13%와 50%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

은 23일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안은) 민생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국민연금)은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된다. 이 점을 망각하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특위 소속 김미에 국민의힘 의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와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유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는 반박문을 냈다. 김 의원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20대(18~29세)에서도 소득보장론(53.2%)이 재정안정론(44.9%)에 앞선 응답자 특성별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연금특위 소속인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 목소리가 소득 보장 쪽으로 나왔다면 ‘개악’이라고 말하기보다 절충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

했다.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려면 연금특위가 법안을 만들고 위원 13명 중 과반(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하게 된다.

여야 의견은 큰 틀에서 엇갈리지만, 1안과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을 적절히 조화하는 절충안도 출될 가능성도 있다. **남수현·문상혁 기자**

## 용산, 의사단체에 “협의체 참여 거부 유감”... 대화 재차 촉구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2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앞에 토요일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가동된다. 특위에는 정부 인사와 의료계·환자단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일단 특위를 출범한 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의료계 참여를 최대한 독려할 계획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형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일대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장 수석은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 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의료계는 협의체를 꾸리되 정부와 의료계 사이 일대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일대일 대화도 거

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는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정부를 향해 대화 전제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 이어 복지부 장관관 경질을 다시 내세웠다. 그는 페이스북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적었다. 또 의대 정원 대폭 증원을 주장하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그럴 경우 정부와의 대화를 생각해 보겠다”는 글도 게시했다.

대학병원 교수들의 이탈 소식에 더해 일부 병원이 주 1회 외래진료 및 수술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환자들의 불안

은 커지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증 환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치료가 가능한 3차, 2차 심지어 요양병원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했다. 안기중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생명줄을 놓고 떠난 의사들이 내놓는 주장을 국민이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현장에 남아 환자와 이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공백에 대비해 정부는 24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168곳에서 189곳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68곳은 암환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한 암 진료협력병원이다. 진료협력병원은 상급병원에서 제때 수술이 이뤄지지 않는 환자를 의뢰받거나 상급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은 후의 회복기 환자 예후 관리를 돕는다. **황수연 기자**



##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당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검찰총장 “술판 주장, 범죄자 이화영의 사법 붕괴 시도”

(이원석)

이재명 대표 등 겨냥해 작심발언 “이화영, 날짜 등 계속 말 바꿔”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 제기와 관련해 “중대한 부패범죄자가 허위주장으로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법원과 검찰을 흔들

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권 정치인들이 연일 “술파티 진술 조작” 등으로 의혹 제기에 가세하자 검찰총장이 직접 작심발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 총장은 야권이 이를 소재로 정치 공세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중대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끌려다녀서는 안 되며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주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한 것을 두고 “공당(公黨)에서 이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사실을 진술한 것도 100% 진실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인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와 정보 활동 등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게 쓰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다”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의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재판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회유 주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김준영 기자

## ‘새만금 태양광 특혜 의혹’ 건설사대표 실종 미스터리

### 사건추적

군산시장이 사업자에 특혜준 의혹 검찰 “아직 소환통보조차 안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던 전북 전주의 중견 건설사 대표 A씨(64)가 사라졌다. 23일로 실종 9일째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전날(22일) 소방당국과 A씨 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을 짐작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며

“극단적 선택뿐 아니라 납치·말함·강력범죄 피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A씨 부인이 “남편이 ‘검찰 수사 때문에 힘들다’며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신고했다. 신고 당일 전북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인근에서 A씨 승용차가 발견됐다. 경찰 등은 연일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호수와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A씨가 임실

을 벗어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사 내부 사정까진 알 길이 없지만, 지금으로선 (A씨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왜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주목했을까. 업계 등에 따르면, A씨는 30년 넘게 업체를 운영하며 연간 수익액 50억원 규모의 업체를 1000억원대로 키웠다. 출신 고교·대학의 총동문회장을 맡는 등 신망이 두텁고 사회 활동도 왕성했다고 한다.

2020년 10월 A씨 업체가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게 사건의 발단이다. 군산시가 출자·설립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한국서부발전이 1268억원을 들여 군산시 내초동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쪽 1.2㎢ 부지에 99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2-1공구(49.5MW), 2-2공구(49.5MW)로 나눠 추진했는데, 5개 업체가 응모한 2-2공구에서 A씨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

는 2021년 12월 준공돼 가동 중이다.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압준 군산시장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은 지난해 7월 군산시청과 A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A씨는 건설 경기 침체에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렸다고 한다.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소환 조사는 커녕 소환 통보도 안했다”고 일축했다. 김준희 기자

## “공원 걷은 아이들, 철학자 됐으면... 정영선의 그 마음 담았다”

(조경가)

서울 선유도공원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다. 한국 조경의 역사를 쓴 정영선(83) 선생은 정수장으로 소임을 다한 이곳을 자연에 되돌려 줬다.

지난 17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땅에 쓰는 시’를 보면 이곳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 수 있다.



김종신

영화를 만든 이는 정다운 감독(이하 정), 김종신 PD(이하 김) 부부다. 정 감독과 김 PD는 유하 감독의 영화 ‘결혼은 미친짓이다’(2002) 영화 제작진으로 처음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정 감독은 케임브리지 대학원에서 건축

영상을, 김 PD는 런던 명문 골드스미스대에서 영상을 공부한 뒤 귀국했다. 이들은 ‘이타미 준의 바다’ ‘위대한 계약: 파주, 책, 도시’ 등 건축 다큐멘터리를 꾸준히 만들어 왔다. 정다운-김종신 부부를 18일 선유도 공원에서 만났다. -이번 다큐를 만든 계기는, 정 “(정영선)선생님은 공공의 공간을 중시하는데, 그 공간의 길을 산책했던

아이들이 자라나 철학자가 되면 좋다고 늘 이야기한다. 차세대들을 위한 ‘선물’ 의미에서 그 과정을 꼭 담고 싶었다”

-이타미 준(伊丹潤, 한국어를 유동통) 건축가부터 정영선 조경가까지, 대가의 작품을 다뤘는데, 김 “우연히 친구 소개로 파주출판단지 관련 다큐멘터리를 찍게 됐는데, 그 작품 하나에만 50명이 넘는 건축 및 출판 관련 대가가 등장한다. 그분들 이야기를 전하면서 스스로도 성장했다. 그런 지혜를 관객께 전하고 싶다.” -앞으로 계획은,

정 “꼭 하고 싶은 게, (고)건축 프로젝트다. 일제강점기와 고속 개발의 역사를 지나면서 우리네 것을 잊지 않았나 싶다. 싹 밀어버리고 새 길 짓는데 워낙 익숙한데, 원래 문화를 되새기는 다뤄야 꼭 찍고 싶다.”

정영선 조경가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조경가협회(IFLA) ‘제프리 켈리코 상’을 수상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그에 대한 전시 ‘정영선: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가 열리고 있다. 9월 22일까지. 전수진 기자

## 서울대공원 명물 ‘태백’ 하늘나라로

(시베리아 호랑이)



2018년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시베리아호랑이 ‘태백’이 19일 폐사했다. [사진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의 시베리아호랑이 중 한 마리였던 ‘태백’이 지난 19일 폐사했다. 23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태백이는 지난 2월부터 변 상태가 좋지 않아 진료를 받아왔다.

서울대공원은 “태백이에게 약물치료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먹이 섭취를 시도했으나, 2일부터는 먹이 섭취량이 미미하게 됐다”며 “꾸준히 치료를 진행했지만, 호전되지 않고 결국 눈을

감고야 말았다”고 전했다. 시베리아호랑이 태백이는 2018년 5월 2일 백두, 한라, 금강과 함께 4남매로 태어났다. 서울대공원은 “태백이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사육사를 비롯한 동물원 직원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부디 태백이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애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대공원은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맹수사 호랑이 방사장 앞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현예수 기자



엄마, 책 재미있어요 ‘세계 책의 날’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한 어린 이가 엄마와 함께 책을 읽고 있다. ‘세계 책의 날’은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됐다. [뉴스]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비 이민비자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Eng/Kor) (구원번호)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 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은 한곳에서

2023 Return

##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 메디케어

###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진료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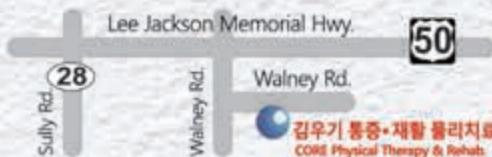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우리말 바꾸기

‘웬’과 ‘웬’

글을 쓰면서 가장 헷갈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웬/웬’이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막상 사용하려면 어느 것이 맞는지 또 아리송해진다.

가장 헷갈리는 경우는 ‘웬지’ ‘웬지’다. 발음이 거의 같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답은 ‘웬지’다.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이다. ‘왜’ ‘그런지’ ‘모르게’ ‘무슨 까닭인지’라는 뜻이다. “올해는 웬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웬지 오늘은 달달한 것이 당긴다”처럼 쓰인다.

‘웬지’가 ‘왜인지’의 준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웬지’로 쓰지 않을 수 있다.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을 뜻하는 관형사다. 관형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다. 따라서 ‘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 “이리 늦다니 웬 영문인지 모르겠다” “웬 걱정이 그렇게 많아?” 등과 같이 사용된다.

그럼 ‘웬걸’은 어떻게 될까? ‘웬걸’이 맞는 말이다. ‘웬 것’이 줄어 ‘웬걸’이 됐다. “웬걸 먹을 것을 이리도 많이 사왔나?” “웬걸 사람이 이렇게 많이도 모였나?” “안 먹던 술을 웬걸 그렇게 많이 먹었던지”처럼 쓰인다. ‘웬일’도 틀린 말이다. ‘어찌 된 일’이라는 뜻으로 원래 ‘웬 일’ 형태였지만 ‘의외’라는 의미의 한 단어로 취급해 ‘웬일’이 됐다. “이게 웬일이나” “자카 한 번 없던 그가 결석을 하다니, 웬일일까?”와 같이 사용된다.

올가을 대학 입학 예정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상당수가 합격 통보를 받은 대학으로부터 아직 재정 패키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보내는 재정 패키지는 해당 학생이 대학에서 일하며 벌 수 있는 근로 장학금 안내부터 연방 또는 주 정부가 주는 그랜트 액수, 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등을 모두 계산한 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학비를 알려준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는 재정 패키지 내용을 토대로 자녀가 진학할 대학을 결정한다.

이처럼 진학할 대학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인 재정 패키지가 늦어지고 있는 건 올해부터 사용하는 연방 학자금지원신청서(FAFSA)가 대폭 달라졌기 때문이다.

FAFSA는 원래 108개에 달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 상황을 확인하는 질문만 수십 개에 달했다. 이처럼 복잡하고 긴 질문 항목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FAFSA 신청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연방 교육부는 신청서 양식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수년 간의 준비 끝에 올해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개정 FAFSA는 단순해졌다. 질문 항목이 총 36개밖에 되지 않는다. 과거 신청서와 비교해 질문 항목을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인 것이다. 연방 교육부는 개정 서류 공개 당시 신청자 이력과 지원하는 대학 정보 등을 작성하는데 채 10분도

중앙칼럼

저소득층 학생 발목 잡는 ‘FAFSA’



장연화  
LA 중앙일보  
사회부 부국장

걸리지 않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런데 신청서 작성 시간 단축에는 성공했지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 정보를 파악하는 정보 분석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재정 패키지 발송 지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전국학자금행정연합회(NASFAA)’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입학생들에게 재정 패키지를 보낸 대학은 34%에 불과하다. 더구나 전체 대학의 절반이 넘는 54%는 아직 재정 패키지 발송 준비조차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부정확한 세금보고 기록, 인플레이션 계산 오류 등으로 ‘학생 정보 기록(ISIR)’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주 연방 교육부는 이미 발송한 학생 정보 기록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50만 개에 달하는 신청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재검토 완료에만 수 주가 걸릴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UC계열 등 일부 대학은 대학 입

학 결정일(5월 1일)을 2주에서 4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가을학기 시작 전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학자금 보조는 상당 부분 연방정부 기금으로부터 나온다. 현재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펠그랜트는 7395달러다. 그랜트는 상환 의무가 없어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주 정부가 지원하는 펠그랜트도 있다. 펠그랜트의 경우 UC계열 진학생은 연간 1만3000여 달러, CSU(캘스테이트)는 6000여 달러까지 보조한다.

연방 교육부의 데이터를 분석한 ‘국립대학 성취네트워크’의 통계를 보면 지난 1월 말 현재 전국에서 약 70만 명의 대학 입학 예정자들이 FAFSA를 제출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150만 명보다 절반 아래로 감소한 숫자다.

가주의 경우 지난 2월 2일까지 FAFSA를 제출한 대입 지원자는 전체 고교 졸업생의 16.1%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7% 이상 감소한 숫자다.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주고 학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개정된 FAFSA가 오히려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J네트워크

‘저축에서 투자로’ 일본의 변화



이영희  
도쿄특파원

『1시간에 마스터하는 신(新)NISA 교과서』, 『신NISA 완전공략: 월 5만엔으로 시작해 1억엔 만드는 법』...

얼마 전 도쿄(東京) 긴자의 한 서점을 찾았다가 신기한 광경을 봤다. 매장 한가운데 ‘신NISA’와 관련한 책이 수백 권 쌓여 있고, 많은 이들이 집중해서 책을 고르고 있었다. NISA란 ‘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준말로 정부가 소액 주식투자자에 제공하는 비과세제도를 말한다. 서점 풍경이 말해주듯, 요즘 일본 금융 시장의 최고 히트 상품이 바로 신NISA다.

2014년 시작된 제도가 올해 유독 관심을 모으게 된 건, 정부의 과감한 개혁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022년 11월 발표한 ‘자산소득 배증 플랜’에서 국민의 노후 자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투자 촉진 프로그램 NISA의 개편을 결정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신N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120만 엔에서 360만 엔으로, 총납입액은 최대 800만

엔에서 1800만 엔으로 크게 늘었다. 비과세 기간은 최장 20년에서 무기한으로 바뀌었다. 투자 대상도 일본 기업 주식과 ETF는 물론 미국 등 글로벌 주식까지 모두 가능하다.

뭐든 더디게 움직이는 일본이지만 이번에는 결단도, 반응도 빨랐다. 지난해 말 기준 NISA 계좌수는 총 2263만 개였는데 올해 1~3월 사이에만 170만 개의 신규 계좌가 만들어졌다. 전년 동기 계좌개설 건수의 3배다. 특히 젊은 층, 여성들의 가입이 늘었다. 자금 유입액도 4조7000억 엔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약 3배다. NISA로 투자

하는 대상은 미국 주식 등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많지만, 올해 들어서는 신규 투자금의 약 절반 정도가 일본 주식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NISA는 일본 사회 분위기까지 바꾸고 있다. 이번에 처음 신NISA 계좌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는 30대 회사원 친구는 “계좌에 찍히는 돈이 늘어나는 걸 보니 일본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웃었다. 농반진반으로 “NISA 개편은 기시다 총리의 최대 업적 같다”고도 했다. 지난해 말만 이어나가 모리우키(岩永守幸) 도쿄증권거래소 사장은 “일본 주식시장 활황이 계속될 수 있겠나”는 질문에 “일본인은 이제야 막 저축에서 투자로 돌아섰다. 변화는 큰 물결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한국 정부가 개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만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의 경우, 비과세 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직은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NISA의 성공 사례를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BED BUG

## 민대퇴치! ELIMINATE!

more ▶ [www.sk-pest.com](http://www.sk-pest.com)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skpmva@gmail.com

무료  
견적

571-992-5789

## 김철민

###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 K팝 왕국 약점 드러낸 하이브 내분, 그 뒤엔 '한 지붕 11가족'

### 방시혁·민희진 갈등 왜 불거졌나 하이브, 다양한 레이블 인수·편입 각 회사에 자율권 주며 독립 경영 '레이블간 과열 경쟁 과열음' 분석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에 대해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23일 "구체적인 회사 탈취 기도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는 이날 오전 하이브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전날 민 대표가 임명문을 내고 "하이브 산하 신인 걸그룹 아이릿이 뉴진스를 따라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나를 해임하려 한다"고 맞받아친 데 대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들은 아이릿의 데뷔 시점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기획된 내용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데뷔한 아이릿은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신인 걸그룹으로,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긴 생머리의 청초한 소녀 이미지, 패션행사를 통해 첫 공식스케줄을 소화한 점 등이 뉴진스와 비슷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 대표는 22일 낸 입장문에서 "아이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에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진스 데뷔 이후 상당



방시혁은 아이릿의 데뷔앨범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뉴스1, 사진 빌리프랩]

수 그룹이 청순하고 청량한 10대 콘셉트로 등장하고 있는 흐름을 볼 때, 아이릿도 그런 트렌드를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또 소속그룹 색깔을 비슷하게 이어가는 건 SM, JYP, YG 등 메이저 기획사들이 고수해왔던 방식이다. 엔터 전문 이용해 YH&CO 변호사는 "콘셉트, 의상, 헤어 등이 저작물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뉴진스가 가요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이브 내홍은 문어발식 레이블 경영 방식에 따른 예견된 위기란 분석도 있다. 2005년 방 의장이 설립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부터 출발한 하이브는 빌리프랩(2018), 쏘스뮤직(2019), 플레디스(2020), 어도어(2021), QC미디어홀딩스·액자일 뮤직(2023) 등 레이블을 인수하거나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몸집을 불려왔다. 현재 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해외 회사를 합쳐 11개에 달한다.

하이브는 "각 레이블의 독립적 운영을 통해 레이블 간 경쟁과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레이블 간 경쟁을 부추겨왔다. 사내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레이블 운영을 하고 있는 JYP엔터테인먼트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이를 통해 하이브는 짧은 기간 내에 르세라핌, 뉴진스, 투어스, 보이넥스트도어 등의 신인그룹을 성공적으로 데뷔시키며,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

이같은 레이블 경영방식은 전통적인 '톱 다운' 방식보다 더 많은 가수과 음악을 양산하는 장점이 있지만, 레이블 간의 성과 경쟁으로 이번 같은 '카니발라이제이션' (자기잡식, 제살짜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하이브가 80%라는 압도적 지분을 보유한 어도어에서 잡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하이브의 레이블 경영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작가는



뉴진스는 SM아트디렉터 출신 민희진의 프로듀서 데뷔작이다. [사진 어도어]

"멀티 레이블 체제를 성공적으로 꾸려나가려면 모기업이 누적되는 리스크들을 관리·보완해야 하는데 하이브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체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레이블 컨트롤이 안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단순히 '민희진 대 방시혁' 구도로 볼 게 아니라, 다양한 음악을 요구하는 대중에 부응하는 멀티 레이블 체제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유사성 등을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프로듀서가 소속사로부터 그룹을 빼가려했던 피프티피프티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만약 민 대표가 뉴진스와 함께 독립을 시도한다면, 피프티피프티 사태처럼 여론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민 대표는 23일 한 언론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피프티피프티 사건처럼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K팝 걸그룹이 집안싸움으로 무너지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도현 평론가는 "뉴진스와 아이릿의 이미지 훼손은 이미 상당하다. 5월 컴백을 앞둔 뉴진스가 활동을 무사히 이어간다고 해도 이전의 과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막 데뷔한 아이릿에 붙은 '아류'라는 꼬리표는 멤버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집안싸움에 하이브 주가는 연일 하락세다. 22일 전일대비 7.81% 하락한 데 이어 23일에도 2500원(1.18%) 빠진 21만원에 장을 마쳤다. 한화투자증권의 박수영 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민 대표의 어도어 지분이 18%에 불과하고 뉴진스 활동이 그대로 진행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뉴진스가 배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하이브 내 민희진 배제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지영·어환희 기자**

"이 작품의 주인공은 다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어의 꼬리를 본 따 만든 긴 바지를 입고 춤을 추죠. 그러면서도 아주 우아하게 보여야 합니다. 꼬리가 잘려나가는 장면에서는 추한 움직임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살아있는 발레 전설로 불리는 독일 함부르크 발레단의 예술감독 존 노이마이어(85)는 23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립발레단의 신작 '인어공주'를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과 발리의 전통춤에서 착안한 동작 등 도전적인 안무가 많지만, 국립발레단에는 뛰어난 무용



존 노이마이어

## 발레의 전설 "내 인어공주, 우아하면서도 추해야"

(존 노이마이어 감독)

수가 많다"면서다.

미국 태생의 노이마이어는 드라마 발레의 거장이다.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이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에게 무용계 최고 권위의 상인 브누아 드라 당스 상을 안겨준 작품 '카멜리아 레이디'를 만든 이가 노이마이어다.

'인어공주'는 2005년 덴마크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열린 덴마크 발레단



이 노이마이어에게 의뢰한 작품이다. 그해 4월 코펜하겐 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됐고 덴마크 여왕 마르그레테 2세에게 헌정됐다.

발레 '인어공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해피엔딩이 아닌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노이마이어는 "디즈니의 '인어공주'와는 다르게 안데르센의 원작으로 회귀했다"며 "인어공주는 사랑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 그 비극성과

감동이 관객들에게 가닿길 바란다"고 했다.

노이마이어는 "우리 영혼은 깊다. 바다보다도 깊고, 다이빙가 갈 수 있는 곳보다 깊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의 영혼,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안데르센의 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함부르크 발레단을 이끌어 온 그는 내년에는 단장직을 내려놓을 계획이다. 그러면서 "안무가로서는 신작을 내놓고 싶다. 아직 내 창의력이 정점에 다다른 것 같지 않아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국 무용수들에 대해서는 "훈련이 잘 돼 있고, 성실하다"고 평가했다. **홍지유 기자**

# 백성호 CPA, MBA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백성호 공인회계사**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관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마이클 장

맞춤 융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시 설

“한국의 경제 기적 끝났나” 묻는 FT의 쓴소리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어제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에서 우리 경제의 약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값싼 에너지·노동력에 의존한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은 한계에 봉착했고, 기반기술 부족으로 한국의 글로벌 정상급 기술이 급감했으며, 대기업은 대부분 3세 체제로 바뀌면서 오너 경영인들의 도전 의식이 부족해졌다는 점을 꼬집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지지부진한 개혁 등도 거론했다.

활력을 잃은 한국 경제의 민낯이 외신에 대서특필되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FT의 이런 지적은 사실 새로운 것도 없다. 이미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이 술하게 언급해 온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다. FT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가라앉는 느낌(Sinking feeling)’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국 경제 위기론을 집중 조명해 정부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그러나 그때에 비해 이번 보도는 정부가 해명하거나 반박할 내용이 별로 없다.

FT의 가장 아픈 지적은 종선 이후 한국의 리더십 분열을 거론한 대목이다. FT는 “정치적 리더십이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대통령의 행정부로 쪼개지면서 차기 대선이 있는 2027년까지 3년 이상 정국이 교착될 전망”이라고 썼다. 정치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저출산이나 에너지 부문의 구조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같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가까운 장래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FT는 분석했다.

실제로 FT의 우려대로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전 국민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13조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경제 위기나 대규모 재해가 터진 것도 아닌데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법적 요건에 어긋난다. 3%대로 오른 물가 불안을 더 키우고 재정 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올해도 기업의 실적 악화 탓에 법인세 등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냈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실적 악화로 올해는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런 판국에 전 국민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최삼목 경제부총리는 FT 기사에서 “한국인의 DNA에 역동성이 내재해 있다. 경제적 역동성을 다시 펼치기 위해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만,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정책 당국자가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를 낙관하는 것 자체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는 최고위 경제 공직자의 희망 섞인 분석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좌파 국회와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갈린 리더십” 재정 악화, 고물가 부를 13조 현금 살포는 자제를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길 연금개혁안 국회가 보완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연금 개혁안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하 공론화 위원회는 시민대표 492명의 설문조사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을 다수(56%)가 선택했다고 밝혔다. 1안을 얼핏 보면 보험료율을 12% 올리고 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2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기금 고갈 시기의 경우 1안은 2061년, 2안은 2062년으로 1년밖에 차이가 안 난다.

문제는 그 이후다. 1안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2061년 이후 연금 보험료율이 30~40%대로 급증하면서 현재 20세 이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1안이 보험료율은 4%포인트 인상한 데 비해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나 올린 탓이다. ‘조금 더 내고 훨씬 많이 받게’ 설계해 갈수록 적자가 커진다.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누적 적자를 702조원이나 증가시킨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계산도 있다.

국민연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기금 수익률과 의무가입 연령, 기초연금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다. 이런 복잡다기한 사안을 시민대표 492명의 설문조사로 결정하는 건 무리다. 특히 기금 고갈 이후 급증하는 보험료를 떠안게 될 10대 이하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기성세

대는 활약한 소득대체율로 혜택을 보지만 이에 따른 빚은 청년세대에게 돌아간다.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을 ‘산·구연금’으로 분리하자고 제안한 이유도 청년세대에게 과중한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다. KDI 방식을 적용하면 청년 세대는 15.5% 정도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면 되지만, 공론화위 다수안(1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료율이 35% 이상으로 치솟는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미래 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소득이 별로 없는, 암울한 시대를 맞게 된다. 지난해 0.72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올해 0.6명대로 떨어지는 초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앞날은 더 어두워진다.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9%에 묶여 있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대폭 올려 기성세대만 이득을 보는 개혁은 아니 한 못하다. 국회 연금특위가 공론화위의 결과를 넘겨 받아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 필요하다. 벌써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김성주 의원)는 더불어민주당과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유경준 의원)라는 국민의 힘이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하는 개혁안을 지금 그대로 통과시켜선 안 된다.

‘배신’ 너머

고정애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배신’. 요새 여권을 내적 불안에 빠뜨리는 단어다. 흥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목해 사용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란 이가 동조했다.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같은 걸 두고서다. 한 전 위원장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간 오찬이 성사되지 않은 걸 보면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원래 대통령과 2인자의 관계는 늘 미묘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자의 반 타의 반’이란 말을 남긴 JP(김종필), YS(김영삼)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관계가 널리 알려졌다. 다른 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JP로부터 “1인자와 길을 댄 그림자도 밟지 않도록 물러나라”는 조언을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 정도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철저히 고개를 숙여 무사했다. 반면에 MB는 임기 중반 내키지 않음에도 박근혜 당시 의원이 차기 주자란 현실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손으로부터 권력이 빠져나가는 걸 참아냈다.

이를 공개적으로 ‘배신’으로 규정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2015년 6월 국무회의장에서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 달라”고 했다. 당시 원내사령탑인 유승민 전 의원을 가리킨 말이었다. 유 전 의원은 지금도 ‘배신의 정치’란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으로선 유 전 의원이 행정부 권한인 시행령 제·개정권을 국회가 제어할 수 있게 야권에 양보한 건 선을 넘었다고 봤다. 과도한 타협이긴 했다. 그렇다고 배신이라고까지 해야 했다. 유 전 의원을 여러 차례 중용해 온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소지가 충분했다.

유 전 의원의 입장은 다를 것이다. 2005년 초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이 됐을 무렵, 이런 취지의 말을 했었다. “엄청난 대중 호소력을 가졌다. 아직 굳어 있지 않다.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다.” 단순 참모 이상을 기대했다. 자기 뜻이 채택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실망했고 긴 침묵을

택했다. 원내대표직 도전은 ‘정치인 유승민’으로 서겠다는 독자 선언일 수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았다. 둘의 공개적 반목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잘 안다.

매번 그런 걸 보면 권력의 속성일 수 있겠다 싶다. 누군가는 ‘코트(court·궁정)’란 단어를 쓰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법이 같다. 살아남는 것, 오래 버티는 것 외엔 없다”고 했다. 권력자를 향한 절대 충성 경쟁, 시기와 반목, 음해와 암투 등 말이다. 자의식은 사치라고 했다.

그렇더라도 ‘배신’은 과도한 규정이다. 새로운 시대는 현 시대의 반복일 순 없다. 새 인물은 현 인물의 되풀이일 순 없다. 어느 정도 현실을, 현 인물을 부정하지 않고선 발전할 수 없다. 부정당한 사

대통령과 2인자 갈등 반복돼와 이번에도 윤석열-한동훈 갈등 ‘배신’ 규정 부당... 그래도 풀어야

실, 부정당한 인물에게 부당한 일이다. 역사는 그러나 그런 사실과 사람들을 지천으로 깔고 전진해 왔다. 자신이 키운 ‘보잘것없는 배경의 여성’ 마거릿 대처에게 밀려난 에드워드 히드는 평생 분노했지만(별칭이 the Incredible Sulk, ‘놀라운 삐짐’)이었다. 역사는 대처의 도전이 윤택함을 입증한다. 그런 대처도 결국 밀려났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갈등은 필연일 수 있다. 어찌 관리하느냐는 선택일 수 있다. 가까웠던 사람 간 갈등 관리가 더 까다롭다곤 하나, 지지 기반이 해체된 여권이 자기파괴적 내분을 방치하는 건 지나친 호사다. 더욱이 야권과 협치하겠다는 마당 아닌가. 대통령 진영도, 한 전 위원장 진영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은 역대 2인자들의 고민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고백하자면 정권 출범 때, 한 정치컨설턴트와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중국엔 갈라질 텐데, 언제가 될지’ 얘기한 적이 있다. “둘의 특수관계를 생각하면 그래도 오래가지 않을까” 했다. 단견이었다.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중앙일보

<p>구독신청: 02-751-5588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p> <p>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p> <p>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 불만 처리센터</p> <p>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p> <p>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p> <p>본사 인쇄: 100% 재활용 잉크 사용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구(永固) INK, TIMES, 일본(日本) 뉴스(新聞), 日本(日本) 경제(經濟) 日経(日経) 新聞(新聞)</p>	<p>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p> <p>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p> <p>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기00195</p> <p>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p>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p>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p>
--	--

워싱턴 중앙일보

#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 4월 **HOT** 리스팅

##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 Tel: 703-231-5572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콘도

방2 + 화2

**\$410,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 + 화3, 차고 2

**\$80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 화3.5  
1,496 sqft, 1993년

**\$535,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 화3  
1,360sqft, 1985년

**\$500,000**

# 약척같은 부동산

##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 앰플러스 부동산 / 탐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April 24, 2024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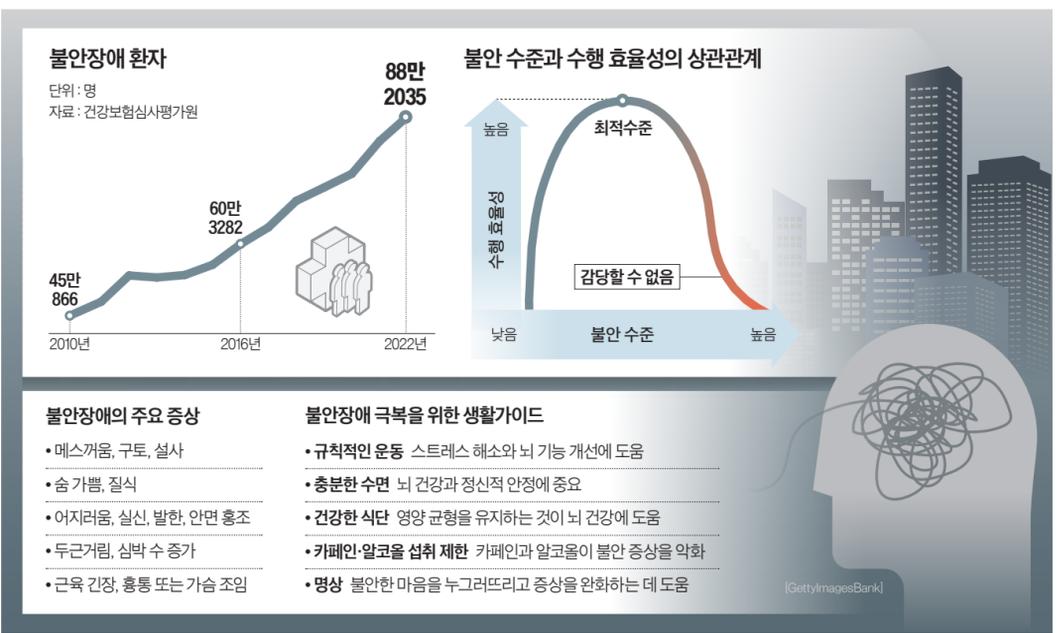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용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 대면 주문 못하고 혼밥 힘들면...사회불안장애일 수도

현대인은 누구나 살면서 불안을 경험한다. 성적에 대한 불안, 경제적 불안, 고용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등 일상에서 겪는 불안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리고 이런 불안은 삶의 고통으로 자리하기도 한다.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이다.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는 "불안은 사람이 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경고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경각심의 원천이기도 하다. 실제로 불안은 수행력을 끌어올려 준다. 불안과 수행 효율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을 보면 불안 수준이 증가할수록 수행 효율성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불안이 자신의 기능과 위기 대처 능력을 높여주는 셈이다.

6개월 혹은 1년 이상 유지치로 필요 불안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 '방 안에 말벌이 들어왔을 때 말벌이 날아다니면 스트레스고 그 말벌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때부터 불안이다.' 불안은 사람의 생각이 만든 존재인 셈이다. 문제는 불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다. 불안의 정도가 수행 효율성이 최고치를 찍은 수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심한 하향 곡선을 보인다. 그러다 불안은 고통만 남고, 심하면 감정의 수준을 넘어선 질환이 된다. 바로 불안장애다.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혜원 교수는 "일반적으로 불안의 정도가 심하거나 또 자주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될 경우 불안장애로 본다"며 "환자는 이런 불안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고 심하게 고통스러워한다"고 말했다.

불안장애의 카테고리는 다양하다. 이 만큼 종류가 다양한 질환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특정공포증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사회불안장애 등이



불안장애, 공황·강박·PTSD 등 다양 특별한 원인 없고 예방 어려운 질환 약물·상담치료 땀 2~3개월 후 호전 재발 잦아 임의로 약 끊어서 안 돼

모두 불안장애에 속한다. 연예인 등 유명인을 통해 잘 알려진 공황장애는 호흡 곤란, 가슴 답답함, 기절,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의 갑작스러운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공황 발작이 심하면 1 시간 이상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이 많거나 폐쇄적인 장소 등에서 잘 생기고 발작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다. 범불안장애는 사소한 일에 대한 만성적인 과도한 걱정과 긴장이 두통, 불면 등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다. 특정 공포증은 높은 곳, 특정 동물이나 곤충, 혈액, 주사기 바늘 등 특정 조건에서 불안이 과도하게 행동에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강박장애는 청결, 문단속, 물건 배치 등에 집착적인 행동으로 불안을 안고 사는 상태를 말한다. 정신적 충격을 준 사고나 재해 이후 겪는 불안으로 알려진 PTSD는 꿈이나 회상을 통해 해당 사고나 재해를 재경험하고, 이에 대

한 극심한 회피, 기분의 부정적 변화, 과각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사회불안장애는 사회적 관계나 상황에 대해 극심한 불안으로 고통을 겪는 불안장애다. 이 경우 대중 앞에 나서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 식사하고 대화하기를 고통스러워한다. 정도가 약하면 수줍음이지만 불안의 증상이 심하면 사회불안장애인 셈이다. 강승걸 교수는 "사회불안장애 환자는 친한 사이나 가족 간에는 괜찮지만 초면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로 받아들인다"며 "식당이나 가게에서 주문하기도 힘들어하고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것도 불안해하면서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물론 특정 증상이 있다고 불안장애는 아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담, 설문검사 등을 통해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해 진단한다. 류장훈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메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원 모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 젊을 때 근골격계 손상되면 '관절 수명' 단축... 스트레칭하고 보호 장비 써야

## 스포츠 손상 주의보

운동 재미에 빠질수록 부상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축구·골프·테니스 등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20~30대 젊은 연령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으로 골골하는 경우가 흔하다. 준비운동을 생략하며 무리하게 운동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습관이 부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나이가 젊을수록 체력·회복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부상 예방에 소홀히 하고 손상이 누적되면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어깨·발목·무릎이 노화해 고생하기 쉽다.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이동원 교수는 "미세 손상이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치유 능력 한계치를 넘어가기 때문에 재생보다는 퇴행성으로 진행된다. 관절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힘들다"고 말했다.

스포츠 손상은 주로 외상과 과도한 사용 탓에 힘줄·인대·근육 등이 다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안전사고 실태 종합 보고서(2020)에 따르면 생활체육인의 주요 부상 부위는 발목, 무릎, 손목, 어깨 순으로 많다. 염좌(뺨)와 좌상(타박상), 골절을 주로 입었다. 손상 예방 실천에는 미흡한 편이다. 3명 중 1명은 부상 발생 전 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 운동을 하지 않았다. 마무리 운동과 안전 기구 착용, 운동 수준 파악에 대한 실천 정도 또한 낮았다.

**과도한 동작 반복하면 힘줄·인대 등 손상**  
젊은 나이에 발생한 근골격계 손상은 관절 수명을 앞당긴다. 대표적 스포츠 손상으로는 무릎 반월 연골판 손상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다. 빠른 속도

로 달리다 갑자기 멈추거나 급히 방향을 바꿀 때 등 무릎에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는 게 문제다. 이동원 교수는 "연골 밑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손상이 진행하면 주변 정상 연골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퇴행성 질환으로 갈 확률이 높다. 여기에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인대 손상까지 더해지면 퇴행성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된다"며 "반월 연골판과 인대 손상을 입는 젊은 연령층이 늘어 이른 나이 무릎 관절염 환자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10~20대 때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거나 자주 접질렸던 과거력은 40대에 중증 발목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

과사용으로 피로감이 쌓이는 것도 스포츠 손상의 주원인이다. 지나치게 오래 걷거나 달리고, 발차기·레그프레스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과하게 하면 고관절에 미세 골절이 생긴다. 상체의 하중을 두 개의 타구공만 한 관절 부위가 감당하면서 힘줄·근육·인대 등이 손상된다. 요가·필라테스 등을 하며 고관절 가동 범위를 무리하게 늘리는 것도 손상 원인이다. 골프·배드민턴·야구·테니스처럼 어깨 회전 동작이 많은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피로가 누적되면서 습관적으로 어깨가 빠지기 쉽다.

스포츠 손상을 예방하는 기초 공사는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이다. 준비운동은 관절과 근육을 따뜻하게 만드는 예열 작업이다.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가기 전 가벼운 스윙을 하는 것이 좋은 예다. 같은 동작을 가볍게 반복해 해당 부위에 혈액이 흐르도록 관절을 데운다. 운동 종목에 따라 예열 부위는 달라진다. 야구·배드민턴·테니스는 어깨와 손목을, 달리는 발목·무릎



을 10분 이상 집중적으로 움직여 주면 된다.

인대·근육을 늘려 주는 스트레칭은 이렇게 관절을 뻐뻐한 다음에 시작한다. 체열이 남아 있을 때 스트레칭을 해야 근육이 잘 늘어난다. 스트레칭할 때 정적인 자세에서 당기는 느낌이 드는 지점까지 근육을 이완시키고 5~10초 유지한다. 땀기듯 반동을 주면서 빠르게 반복하면 탄성 때문에 오히려 근육이 찢어지거나 뭉칠 수 있다.

**발목 접질렸을 땐 보호대 2주 이상 착용**  
잘 넘어지고 쉽게 발목을 접질

릴 수 있는 축구·테니스·등산을 할 땐 무릎·발목 보호대를 착용하면 도움된다. 발목을 접질렸을 땐 부기·피멍이 없는 가벼운 염좌여도 냉찜질을 하고 발목 보호대를 2주 이상 착용하는 게 좋다. 그래야 발목 관절이 습관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걸 막는다.

운동을 무리하게 했거나 열감·통증이 있을 땐 관절을 쉬게 해야 한다. 통증을 운동으로 풀어야 한다며 방지하듯 다들 문제를 키운다. 운동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교수는 "단발성의 미세 손상에서는 치유 능력이 있

다. 운동하다 무리가 왔어도 휴식을 취하면 좋아진다"고 했다.

평소에는 관절이 충격에 견디는 정도인 '무릎 기능 한도'를 늘리는 것이 좋다. 부상 위험을 줄이고, 손상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해 남아 있는 관절 기능을 보존한다. 이 교수는 "예기치 못한 불안정한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는 평형감각 기능을 함께 기르는 게 도움된다. 앉은 자세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와 스쿼트, 눈 감고 한 발로 서기와 쿠션 등에 올라가 한 발로 균형 잡기를 꾸준히 실천해 보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영 기자

## 연구리포트

# 봄철 호흡기 건강 주의보... 홍삼 성분이 면역력 촉진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에 경기도 전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게다가 최근 일본에서 독성쇼크증후군이 유행하고 있어 호흡기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간절기에는 면역력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활동력이 낮아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나 유해균의 감염률이 높아진다. 결국 평상시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데, 개인위생 관리와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홍삼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홍삼의 다양한 성분 중 홍삼당체는 대식세포의 활성을 유도해 선천적 면역을 촉진하고, 진세노사이드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홍삼

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이유다. 홍삼을 섭취하면 미세먼지·천식 등으로 인한 염증을 줄여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전남대 수의학과 배춘식 교수와 동신대 간호학과 박대훈 교수 공동연구팀은 홍삼을 섭취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 천식에 의해 유발되는 점액 과다분비, 상피세포 증식, 염증세포 침윤 등이 개선돼 호흡기 염증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실험쥐 84마리에게 알부민으로 천식을 일으킨 뒤 홍삼 추출

물, 항염증 약물(덱사메타손) 등을 5일 동안 경구 투여한 후 혈액, 기관지 폐포세척액(BALF), 폐 조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천식 대조군 대비 홍삼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에서 염증이 발생하면 증가하는 호중구 총 세포 수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38%, 30% 감소했고, 폐 조직 검사에서도 점액 과다분비가 27%, 상피세포 증식 35%, 염증 세포 침윤이 50% 감소했다. 배춘식 교수는 "홍삼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면역력 증진, 항바이러스, 염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홍삼 추출물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를 통해 천식에 의해 유발되는 호흡기 질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대전대 한의과대학 동서생명과학 연구원 김승형 연구팀은 쥐에게 미세먼지를 노출해 기관지와 폐 세포에 염증을 유발한 후 홍삼 추출물 300mg/kg을 12일 동안 먹게 하고 혈액, 기관지폐포세척액, 폐 조직을 분석했다. 그 결과, 홍삼 섭취군의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염증이 발생하면 증가하는 호중구 총 세포 수는 대조군 대비 48% 억제됐고, 염증성 사이토카인(TNF- $\alpha$ )은 폐 조직과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대조군 대비 36%, 45% 억

제됐다. 이를 통해 홍삼이 미세먼지로 인한 폐 조직의 염증 및 기침 관련 유전자 발현을 억제해 호흡기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성균관대 약대 이동권 교수팀은 폐렴구균에 감염된 실험쥐를 대상으로 홍삼과 생리식염수를 각각 매일 100mg/kg 투여하고 15일간 관찰한 결과, 생리식염수만 먹인 쥐 그룹은 50%만 생존한 반면 홍삼을 먹인 쥐 그룹은 100% 생존했다. 특히 홍삼이 대조군에 비해 TNF- $\alpha$ , IL-1 $\beta$  등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폐렴구균 수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류장훈 기자

#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 봄바람·꽃가루에 눈·코·피부 몸살...수분·체온·영양 유지 필수

**봄철에 흔한 증상 대처하기** 봄철은 건강관리하기 까다로운 계절이다. 기온이 올라 따뜻하지만 아침저녁 일교차가 크고 건조감이 심하다. 때때로 바람이 불어와 날씨가 급변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계절성 질병이 성행해 크고 작은 증상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눈·코·피부 건강이다. 외부 환경의 영향을 직접 받아 이들 부위가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올바른 관리법을 통해 봄철마다 괴롭히는 증상에서 벗어나자. 김선영 기자

**충혈되고 가려우며 뻑뻑한 눈**  
건조한 날씨와 바람에 날리는 꽃가루·미세먼지는 눈 건강과 상극이다. 알레르기 결막염, 안구건조증의 주요 위험 요인이다. 결막은 눈꺼풀의 안쪽과 안구의 흰 부분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이다. 이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 결막염이다. 요즘 같은 봄철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흔히 발생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으면 눈꺼풀이 가렵고 눈이 충혈되며 화끈거린다. 눈물이 흐르거나 결막이 붓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평소와 다르게 눈이 가렵고 눈곱이 많이 낀다면 꼭 의심해 봐야 한다. 대전충주대병원 안과 이수나 교수는 “알레르기 결막염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거나 전염되지 않는다”면서도 “정확한 항원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편감이 심하거나 오래 간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한다.

예방을 위해선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눈 비비는 습관은 안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데다 손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 증상을 악화시킨다. 간지러울 땐 흐르는 물에 눈을 닦고 통증이 있을 땐 냉찜질을 해주는 편이 낫다. 봄철마다 증상을 겪는다면 이 시기엔 콘택트렌즈보다 안경을 쓰고 눈에 닿기 쉬운 베개와 이불을 자주 세탁한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층의 양이 줄고 질이 떨어져 발생한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안과 정인권 교수는 “눈의 각막을 보호하는 눈물막이 안구건조증으로

제 역할을 못 하면 각막 손상이나 감염,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빨리 치료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안구건조증이 잦은 사람은 평소 눈꺼풀을 제대로 깜빡이는지 확인한다. 눈을 완전히 감지 않고 반만 감았다 뜨는 환자가 꽤 많다. 이때 눈 표면이 말라 안구건조증이 진행된다. 눈꺼풀을 완전히 감았다가 떴을 때 눈물이 한번 순환하므로 의식해서 시행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눈꺼풀 세정도 좋다. 속눈썹 밑에는 기름을 짜내는 마이봄샘이 있다. 여기서 깨끗한 기름이 나와야 건강한 눈물이 만들어진다. 눈꺼풀을 따뜻하게 해 기름샘을 넓히고 마사지한 뒤 닦아내는 눈꺼풀 세정을 아침저녁으로 한다. 하루 4~6회 인공눈물을 점안하고 자외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선글라스나 챙 넓은 모자를 활용한다.

“**눈 가려우면 비비지 말고 냉찜질** 비염 땐 회피요법·약물치료 병행 피부 팩 오래 하면 짓무를 위험

**콧물·재채기·코막힘 반복**  
꽃가루나 기온 변화에 민감한 사람은 요즘이 1년 중 가장 괴로운 시기다. 비염 때문에 콧물·재채기가 설사 없이 나와 체력을 축낸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항원에 노출되면 약 30분 후 전기 반응이, 약 6시간 후 후기 반응이 나타난다. 전기 반응은 비만세포가 자

극을 받아 히스타민과 같은 화학 매개 물질을 분비하는 과정이다. 코점막 감각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증·재채기·콧물을 유발한다. 후기 반응은 주로 염증 세포인 호산구가 일으키는 반응으로 코막힘의 원인이 된다.

비염 증상 완화엔 생활요법이 필수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건 생리식염수를 활용한 코 세척이다. 부은 코점막을 가라앉히고 비강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며 염증 유발 인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원인 물질 회피요법·약물치료와 병행할 때 좀 더 효과적이다. 대기 질이 안 좋은 날엔 환기할 때를 제외하곤 창문을 닫고 생활하며 외출 시 마스크를 쓴다. 반려동물이 있다면 자주 목욕시키고 수시로 공기청정기를 돌린다.

갑작스러운 찬 공기 노출은 증상을 악화하므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아침저녁엔 겹옷을 입고 실내·외 온도차가 크지 않도록 유의한다. 노원대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욱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은 환경 관리로 원인 물질과 악화 요인을 피해야 하지만 이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상담을 받고 본인에게 필요한 약물치료를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며 “때론 면역요법이나 수술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기고 붓고 뾰루지 난 얼굴**  
기온 변화 폭이 크고 일교차가 심할 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피부의 유·수분 균형이 깨지기 쉽다. 황사·미세먼지·자외선까지 더해지면 피부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다. 피부가 건조

해 당기고 붉게 부어오르거나 뾰루지가 난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역시나 얼굴이다. 세안과 영양 공급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피부 상태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

세안은 아침저녁으로 방법을 달리하는 게 좋다. 아침엔 자기 전 바른 화장품과 얼굴에 붙은 먼지가 남지 않도록 소량의 클렌저를 사용해 1분 이내로 씻는다. 종일 화장한 채 있다가 저녁에 씻을 땐 클렌징 오일·밤을 이용해 화장품과 선크림을 지운 다음 일반 수용성 클렌저로 이중 세안한다. 불필요한 각질과 피지, 모공 깊숙이 자리 잡은 노폐물 제거를 위한 딥클렌징은 주 1~2회면 된다. 과하면 천연 보습 인자가 제거돼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 있다.

건조하고 거칠어진 피부엔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세안 후 토너로 피부 결을 정돈하고 로션류로 수분과 영양을 채운다. 다만 여러 종류를 덧바르면 예기치 못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색소 침착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한다. 마스크팩은 보습제나 유연제가 들어 있어 각질을 잠재우고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 근데 묽은 수분 형태가 많아 장시간 하면 짓무를 위험이 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우유리 교수는 “팩을 20분 이상 붙이면 피부의 유·수분 균형이 깨진다”며 “팩을 붙이고 자는 사람도 많은데 처음엔 팩 성분이 밀폐 효과를 내지만, 성분이 증발하면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날아가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진다”고 말했다.



### Tip

## 봄철 피로 이겨내는 영양 섭취법

- 에너지 대사율 높이기**  
봄은 입학·취업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다. 긴장감이 심하면 스트레스로 작용해 피로감이 쌓인다. 빨리 호전되지 못하면 활력을 잃고 식욕부진·소화불량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이뎨 비타민 B군 함량이 높은 음식으로 에너지 대사에 효율을 높이고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
- 아침 식사 챙기기**  
춘곤증은 계절 변화에 생체 리듬이 즉각 적응하지 못해 발생한다. 봄철엔 신진대사 기능이 왕
- 식재료 다양성 따지기**  
봄엔 에너지 소모가 많아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면역력 강화엔 아연이나 비타민 C·D, 셀레늄 등의 필수 미량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 유리하다. 이는 내가 먹는 식재료의 다양성을 따져보면 된다. 섭취한 식재료가 몇 가지인지, 오늘
- 활력 높이는 간식 먹기**  
졸음을 쫓거나 활력을 충전하고 싶을 때 커피나 단 음식에 자주 손이 간다. 순간적인 에너지를 부여할 순 있으나 의존성이 커진다. 따라서 커피·탄산 음료보다 섬유질이 살아 있는 생과일주스를 마시자. 다만 설탕·시럽은 적게 넣는다. 간식이 먹고 싶다면 장내 미생물 유지에 도움되는 견과류·발효유를 활용한 게 좋다.

은 어제와 다른 식재료를 활용했는지 생각해 다양한 식품을 먹는다.

#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 숨길 좁아지고 폐 기능 약해져 호흡곤란... 한방 복합요법이 해결사

**만성 폐쇄성 폐 질환 3단계 치료법** 호흡기는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신체 기관이다. 특히 환절기엔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호흡기 건강이 악화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된다. 기침·가래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만성 폐쇄성 폐 질환'(COPD)을 진단받는 환자도 적지 않다. COPD는 대표적인 난치성 호흡기 질환으로 꼽힌다. 그만큼 치료가 까다로운 것도 문제지만, 감기로 질환을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부지기수다. 40여 년간 COPD 치료를 연구해 온 영동한의원 김남선 원장은 "폐의 염증 반응이 커져 허파파리(폐포)가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며 "COPD를 적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부정맥·협심증·심근경색증 등 심장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경 기자

COPD는 숨길이 좁아지고 폐 기능이 서서히 악화하는 질환이다. 주로 담배 연기,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이 폐에 쌓여 발병한다. 기관지 점막이나 허파파리(폐포)가 부었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면서 만성 염증으로 손상돼 호흡이 어려워지는 게 특징이다. COPD 환자는 주요 증상으로 호흡곤란, 기침, 가래, 가슴 압박감, 전신 무기력증을 호소한다. 기침 후엔 가슴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기도 하며, 가벼운 신체 활동도 버거워지기 시작한다.

### COPD 재발 잦아 적극적 치료 필요

특히 COPD는 한번 발병하면 증상을 개선하기 어렵다. 재발도 잦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급성으로 악화하면 환자 절반의 평균 수명이 3.3년에 그칠 정도로 치명적이다. 환자 4명 중 3명의 평균 수명도 7.7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영동한의원의원인 김 원장이 자체 개발한 복합한약을 통해 COPD를 치료한다. 이른바 '한방 약물 카테일 복합요법'이다. 이는 폐·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신체 자생력을 끌어올리는 근본 치료로 통한다. 체질을 개선해 증상 재발을 막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김 원장은 "복합요법을 시행할 경우 빠르면 3~4개월, 길면 1년 안에 COPD 증상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를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뤄진



영동한의원 김남선 원장은 "호흡기 면역력을 높이면서 심폐 기능을 회복해야 COPD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성욱 객원기자

다. 첫째는 폐를 깨끗하게 만드는 '청폐(淸肺)'다. 호흡기 곳곳에 쌓인 염증을 제거해 숨길을 열어주는 단계다. 청폐 과정이 잘 진행되면 호흡의 통로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기침·가래 등 COPD 증상이 잦아진다. 김 원장은 "호흡기 증상이 지속하면 폐 기능이 더 빨리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염증을 제거하면서 증상을 가라앉혀야 일상생활이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둘째는 면역력 증강이다. 증상이 가라앉았다면 손상된 기관지와 폐포의

“호흡기에 쌓인 염증 제거하는 '청폐' 기관지 확장·폐포 재생해 면역력 UP 심혈관 강화 맞춤식 한약제 처방”

재생을 유도해야 한다. 이 단계에선 호흡기 면역력을 높여 좁아진 기관지를 확장하고 병든 폐포를 새로운 폐포로

대체하는 식으로 치료가 이뤄진다. 청폐와 면역력 증강을 위해 처방하는 한약은 '김씨녹용영동탕'이다. 기존 소청룡탕에 녹용·녹각·신이하 등 35가지 한약재를 배합한 것이 특징이다. 김 원장은 "김씨녹용영동탕에 담긴 약재는 기관지와 폐 면역력을 높이는 데 깊이 관여한다"며 "폐포 재생 속도를 높여 거칠고 딱딱해진 폐를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심폐 기능 강화다. 약해진 폐와 심장 기능을 동시에 보완하면서

신체 자생력을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폐와 심장은 형제 장기로 구분된다. 폐가 나빠지면 심장 기능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폐에서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심장으로 가는 산소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김 원장이 COPD 치료에서 심장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다. 심폐 기능을 높이기 위한 처방은 '김씨공심단'이다.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에 사향·침향 등 심장과 심혈관을 강화하는 한약재를 더해 처방을 완성했다. 김씨공심단의 개인 맞춤형 처방인 'K-심폐단'도 있다. 김 원장에 따르면 K-심폐단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심(強心) 효과가 뛰어나다. 환자의 체질과 증상을 고려한 맞춤 처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한방 복합요법, 세계적으로도 관심

한방 복합요법은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다. 앞서 김 원장은 수차례 국제학회에서 복합요법을 통한 COPD 치료 증례와 한의학적 가치를 발표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미국 하버드 메디컬스쿨에서 국내 한의사 최초로 COPD 한방 복합요법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김 원장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오사카 컨벤션센터에서 복합약물을 사용해 COPD 환자의 완치를 도운 임상 연구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앞으로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면 '사회불안장애'에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극심한 불안이 6개월 이상(공황장애의 경우 1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치료를 권고한다.

나약해서 발병? 정신력 극복? 모두 오해  
치료를 약물치료와 상담치료가 기본이다. 약물의 경우 항우울제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가 주로 쓰인다. SSRI는 항우울제지만 불안장애 치료에도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약

물이다. 내성이 없고 정신과 약물 중 가장 효과적인 약으로 꼽힌다. 반면 항불안제는 증상이 심할 때 급한 불을 끄는 데 쓰인다. 보통 치료 2~3주부터 치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치료 반응이 좋은 경우 2~3개월 후면 호전된다.

단, 치료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증상이 호전돼도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6개월 혹은 1년 이상 유지치료가 필요하다. 괜찮아졌다고 환자가 임의로 약을 끊는 것은 금물이다. 최대한 약을 안 먹겠다고 버티는 것도 마찬가지다.

김혜원 교수는 "좀 나아지면 자발적으로 약을 끊거나 병원에 다니면서도 증상이 심한데 약을 안 먹고 버티는 분들이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치료 기간을 늘리고 병을 키우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약을 처방대로 복용하지 않고 반대로 먹는 것도 위험하다.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은 SSRI인데, 그 대신 약 특성상 효과가 즉각적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다. 강 교수는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SSRI이고 심할 때 먹거나 장기적으로 줄여야 하는

약이 벤조디아제핀인데 거꾸로 드시는 분들이 있다"며 "벤조디아제핀은 치료가 아닌 증상을 눌러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치료가 꼬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벤조디아제핀은 의존성(중독성)이 있는 약물이라 반드시 처방대로만 복용해야 한다.

또한 치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다. '불안장애는 나약해서 생긴다'라거나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오해가 대표적이다. 강 교수는 "불안감을 보이면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나 과거에 뭔가 불

안한 경험이 있거나 양육이 잘못됐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모두 오해"라며 "대부분의 불안장애는 이런 것들과 무관하고 특별한 원인 없이 생겨 딱히 예방하기도 어려운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실사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도 주위에 불안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지지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병원을 방문하도록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류장훈 기자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교통사고 치료 전문



#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http://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mailto: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의학 칼럼

43세 여성환자가 오래된 통증으로 필자를 찾아왔다. 환자는 온몸이 아프다고 하였는데, 여러 부위의 근육통 및 관절통을 호소하였다.

이 외에도 환자는 두통, 손발저림, 어지럼증 및 심한 불면증도 있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쉽게 피로를 느끼며, 폭자고 일어나도 아침에 상쾌한 느낌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일상생활 중에도 집중력이 극도로 떨어져 일하는데 심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환자를 진찰하였을 때 머리뒤통, 어깨, 등, 허리, 팔, 무릎, 그리고 다리 등에서 많은 압통점(눌러봐서 아픈부위)이 있었다.

혈액 검사를 포함한 다른 검사 소견들은 모두 정상이었다.

필자를 찾아온 이 환자는 우울증, 하지불안증, 수면무호흡증 및 건조염과 같은 다양한 국소근골격계 질환도 같이 동반하고 있었다. 환자의 상태는 2010년 미국류마티스협회가 제시한 섬유근통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 약 10%에서 전신의 만성 통증이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이러한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질병이나 신체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에 의하면 이들 중 많은 수가 섬유근통증후군 진단 기준에

### 섬유근통 증후군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준에 합당한 증상 및 징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어떻게 섬유근통증후군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 그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은 섬유근통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중추신경계는 정상인과 다르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섬유근통 환자의 뇌를 기능자기공명영상으로 촬영했을 때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특정 뇌부위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뇌로부터 시작되는 하행통증억제경로가 이들 환자에게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되었다.

지금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어떻게 섬유근통이 생기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많은 답을

곧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섬유근통증후군은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지만 진행하지는 않는다.

주의할 점은 섬유근통증후군은 이를 진단할 특이한 검사가 없는 관계로 류마티스관절염, 전신홍반루프스와 같은 염증성 류마티스질환, 골관절염, 요추관협착증과 같은 비염증성 근골격계질환 등을 감별해야 함이 관건이므로 관련분야 여러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과 협진이 섬유근통증후군 치료에 필요하다.

본 환자의 경우도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통증의 상당 부분이 호전 될 수 있었다.

▷상담 문의 :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건강 칼럼

### 대장암, 오해와 진실

미국 남녀 전체 암 사망 원인 2위인 대장암은 최근 50세 미만 젊은 층에서 발병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암학회 (American Cancer Society)에 따르면, 정기 검진과 생활 방식에서의 위험 요소 변화 등으로 고령자의 대장암 발병률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젊은층의 발병은 매년 1%~2% 증가했다. 대장암은 고령층에만 발생한다는 속설을 뒤집는 결과다.

▶붉은 육류는 섭취하면 안 된다: 붉은 고기가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진실이다. 특히 방부제가 들어있는 소시지, 스펀, 비프저키와 같은 가공육은 높은 열을 가하면 발암 물질이 생성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작화로 고기를 구울 때 몸에 유해한 성분이 발생한다. 두꺼운 불판이나 프라이팬에 굽는 것이 건강에는 더 이롭다.

물론 붉은 육류와 가공육 섭취가 대장암의 원인이라고 백퍼센트 단정 짓기는 어렵다. 채식주의자들에게서도 용종은 발견되고 대장암도 발병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유전적인 요인에 가깝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공육은 피하고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다.

▶변비가 암이 될 수 있다: 이 속설은 오해다. 변비는 대장벽 바깥쪽에 작은 주머니 모양으로 돌출되는 게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염증이나 천공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대장암과는 무관하다. 다만 변비는 대장암의 증상 중 하나일 수는 있다. 갑자기 평생 없었던 변비가 생기거나 다른 증상을 동반한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항문 출혈은 가벼운 증상이니 안심해도 된다: 항문 출혈은 대부분 치질인 경우가 많다. 대장암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만약 마지막 대장내시경을 한 시점이 5년 정도 되었다면, 내시경 검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마이클 김  
전문의/위장 내과  
LA 할리우드 차병원

빈혈도 대장암 증상 중 하나이다. 또한 피의 색이 검다면 위, 붉다면 대장에서의 출혈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는 피가 위에서 소장과 대장을 거치면서 혈액 구성 성분이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항문 가까이 있는 대장에서 출혈이 생기면 붉은색으로 바로 나온다.

▶치료가 필요 없어 그대로 놔둬도 되는 용종이 있다: 이는 사실이지만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하기 전까지는 백퍼센트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중앙성 용종인 '천공'은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장내시경의 결과에 따라 깨끗한 경우에는 10년 후, 용종이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발견된 경우 5년 후, 3개는 3년, 10개의 용종이 발견되었다면 1년 후 다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정기적인 검진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용종을 제거해 대장암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이유다. 현재 미국의 대장내시경 첫 검진 권고 연령은 45세. 이것도 젊은층의 대장암 발병 증가 추세에 따라 2021년 기준의 권고 연령이었던 50세에서 45세로 낮춰진 덕분이다.

대장내시경 결과와 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검진의 주기를 결정해야 한다. 가족력이 있다면 가족이 대장암을 진단받은 나이의 10년 앞선 나이부터 검진을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

한방 칼럼

### 노년층 비만의 위험성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신체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노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 열량 필요량이 30% 정도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과 같은 양을 먹더라도 쉽게 살이 찌게 된다.

비만은 단순히 키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장기 사이에 축적된 내장 지방은 당뇨, 성기능장애, 심혈관 질환과 같은 성인병을 일으키는데, 이는 내장을 둘러싼 지방세포가 비대해지면 몸의 이로운 활성 물질 대신,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지방은 혈당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해 체내 염증 지표도 높인다. 체지방률이 올라감에 따라 지방이 혈액에 녹아 막막 중심부인 황반에 쌓이게 되면 실명 질환 중 하나인 황반변성의 발병률이 75%까지 증가한다.

무엇보다 노년층의 비만은 치매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노년층 비만의 한의학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냉증이다. 냉증은 비장의 소화기능, 신장의 배설 기능과 심장의 순환기능 등 인체의 각종 기능 저하를 일으킨다. 소화기의 냉증은 장의 연동작용을 떨어뜨려,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 복부 지방이 증가하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다. 신장이 차면 수분 대사 장애로 체내 수분이 증가하고, 노폐물 배출되지 않아 몸이 붓는다. 둘째, 습담이다.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소화, 흡수되지 못한 노폐물인 '습담'이 지방으로 전환된다. 셋째, 기허, 기력저하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 허기진 것을 참지 못하고, 과식, 폭식과 피로감을 유발하고, 운동 부



박연정 원장  
LA 해성한방병원

족으로 점점 더 비만이 된다.

노년층 비만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소개한다.

①적당한 단백질 섭취: 체중저하나 근 감소가 심한 노인의 경우 체중 1kg에 1~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항노화 효과가 있는 호두, 잣 등의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견과류도 식간에 간식으로 좋다.

②햇빛 쬐기: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는 체내 합성을 위해 하루 최소 20분 이상 햇빛을 쬐도록 한다.

③근력 운동: 유산소와 근력 운동은 7대 3 비율이 좋다. 만약 유산소 운동을 30분 한다면 근력 운동은 10~13분 이상같이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의 비율이 높을수록 체중이 감소하고, 체중 감소는 골밀도 감소로 골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④빠르게 걷기 운동: 뛰지는 않되 가능한 한 빨리 걷기가 에너지 소모량이 가장 높다. 양손에 스틱을 쥐고 땅을 밀어내듯이 걷는 방법은 척추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신체 균형을 잡을 수 있어서 안전할 뿐 아니라 상체와 전신 근육의 90% 이상을 쓰기 때문에 근력 강화에도 좋다.

⑤하루 4~5잔의 물 섭취: 노년기 신장 기능 저하는 만성탈수 증세를 일으킬 수 있고, 만성 질환의 약제들은 이뇨를 유발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탈수 상태가 더 증가한다. 만성 물 부족은 근육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MD 지언트 No. 1 에이전트

#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 443-759-9798

# 황선홍 VS 신태용... 한 명은 파리 못 간다

한국,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1위 4강 진출 놓고 인도네시아와 맞대결 패배면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 좌절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아시안컵 한·일전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2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최종 3차전에서 일본을 1-0으로 물리쳤다. '윈발 스페셜리스트' 이태석(서울)의 도움을 받은 김민우(뒤셀도르프)가 후반 30분 결승 골을 터뜨렸다. 앞서 아랍에미리트(UAE·1-0승)와 중국(2-0승)을 잇달아 물리친 한국(승점 9)은 이날 승리로 조별리그 3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일본(승점 6)을 제치고 조 1위로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한국은 26일 오전 2시30분 카타르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4강 진출을 다툰다. 신태용 감독은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경험 많은 지도자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호주를 제치고 개최국 카타르에 이어 A조 2위로 8강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파리올림픽 예선을 겸한다. 아시아에는 본선 진출권 3.5장이 배정됐다. 대회 3위까지 올림픽 본선에 직행하고, 4위는 아프리카 예선 4위인 기니와 플레이오프를 벌여야 한다. 한국 축구는 1988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 도쿄올림픽까지 9회 연속으로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다. 올림픽 연속 출




### U-23 아시안컵 8강전

26일(한국시간) 오전 2시30분 한국 vs 인도네시아

<b>황선홍</b>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	<b>신태용</b>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감독
1968년 충남 예산	출생 1970년 경북 영덕
2003년 시작	코치 경력 2005년 시작
2021년 U-23 감독 2024년 A팀 임시감독 겸임	한국 국가대표팀 주요 감독 경력 2015년 U-23 감독 2017년 A팀 감독
B조 1위, 3승 0패 UAE(1-0) 승, 중국(2-0) 승, 일본(1-0) 승	2024 아시안컵 조별리그 성적 A조 2위, 2승 1패 카타르(0-2) 패, 호주(1-0) 승, 요르단(4-1) 승

전으로는 세계 최장 기록이다. 한국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출전을 노린다.

라이벌 일본과 맞붙는 경기, 부담이 컸다. 그러나 황선홍 감독은 중국과의 2차전에서 나왔던 선발 멤버 11명 중 무려 10명을 바꾸는 모험을 감행했다. 올림픽 본선 진출이 목표인 황 감독은 일본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기보다는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아껴 8강전 이후를 대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일본에 밀렸다. 수비에 치중하는 '5백' 전술로 일본의 파상 공세를 가까스로 막아냈다. 일본은 주도권을 쥐고 득점하지 못했고, 한국은 몇 차례 역습 공격 외엔 기회를 잡지 못했다.

왼쪽 수비수 이태석의 그림 같은 코너킥 한 방이 팽팽한 균형을 깨는 기폭제가 됐다. 후반 30분 코너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이태석은 전매 특이인 날



이태석(오른쪽)이 지난 22일 카타르에서 벌어진 23세 이하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최종 3차전 일본전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뉴시스]

카로운 윈발 킥으로 일본 골문 앞에 자리 잡은 김민우에게 크로스를 올렸다. 그러자 김민우는 돌고래같이 뛰어올라 헤딩으로 일본 골망을 흔들었다. 이태석의 대회 3호 어시스트. 한국은 이태석을 이용한 세트피스 한 방으로 단숨에 분위기를 바꿨다.

이태석의 윈발은 황선홍호의 '핵심 무기'로 꼽힌다. 이태석은 UAE와의 1차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49분 '택배 크로스'로 이영준(김천)의 헤딩 골을 어시스트했다. 한 수 아래 상대인 UAE와 비겼다면 황선홍호는 대회 시작부터 흔들릴 뻔했다. 이태석은 중국전에서도 이영준에게 공을 배달했다. 1-0으로 앞선 후반 24분 왼 측면에서 깔아 찬 정확한 크로스가 골대 정면 페널티박스에 있던 이영준에게 연결됐고, 이영준은 윈발로 마무리해 2-0을 만들었다.

이태석은 이을용 용인시 축구센터 총감독의 아들이다. 이태석은 아버지 이을용 감독을 빼닮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을용 감독은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으로 현역 시절 '윈발의 달인'으로 불렸다. 세트피스뿐 아니라 왼쪽 측면에서 문전으로 넘겨주는 윈발 전진 패스가 일품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한·일 월드컵에서 나왔다. 당시 조별리그 1차전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이을용은 전반 26분 절묘한 크로스로 결승 골을 어시스트했다. 그때 이 감독의 패스를 받아 골로 연결한 스트라이커가 바로 황선홍 감독이다.

이을용 감독은 "아들 태석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할 뿐이다. 윈발은 내 DNA를 물려받은 것 같다. 언젠가는 나를 넘어설 것이다. 황선홍 감독님과 함께 꼭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주영 기자**



오kl라호마시티의 사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레이업 슈트를 시도하고 있다. 오kl라호마시티는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뉴올리언스에 94-92로 승리했다. [로이터/USA투데이스포츠]

## 1위 선더, 8번 시드 펠리컨스에 진땀승

1차전 홈경기서 94-92 접전

미국프로농구(NBA) 서부 콘퍼런스 정규리그 1위 오kl라호마시티 선더가 8번 시드로 플레이오프(PO) 막차를 탄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 힘겨운 승리를 거뒀다.

오kl라호마시티는 21일 오kl라호마주 오kl라호마시티의 페이컴 센터에서 열린 2023-2024 NBA 플레이오프 서부 콘퍼런스 1라운드(7전 4승제) 뉴올리언스와 홈 1차전에서 94-92로 이

겼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57승 25패로 서부 1위에 오른 오kl라호마시티는 49승 33패를 기록해 7위에 오른 뒤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 경기에서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고전했다.

게다가 뉴올리언스는 팀 전력의 핵심 자이언 윌리엄슨이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한 플레이오프 1라운드 경기 도중 왼쪽 다리 근육을 다쳐 이날 결장했다.

오kl라호마시티는 94-92로 앞선 종료 직전, 뉴올리언스 C.J 매클럼의 3점 슈트가 빛나기 힘겹게 1차전 승리를 따냈다.

오kl라호마시티는 사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28점으로 제 몫을 했고 쉿 그레이가 15점, 11리바운드, 5블록슛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동부 콘퍼런스 1위 보스턴 셀틱스는 마이애미 히트를 114-94로 대파하고 PO 첫 경기에서 손쉽게 이겼다.

3점슛을 무려 22개나 터뜨린 보스턴은 제이슨 테이텀이 23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트리플더블을 달성했다.

# 헤민한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53.9%	42.9%	2.1%	0.0%
매우좋음	양호	노화시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기억력,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찌릿찌릿  
바닥 못누움

영치  
좌골신경통  
sciatica

옆드리면 통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리기 힘들다  
뒤로 펴기 힘들다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뻐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힘이 없어 잡지 못함

방아쇠  
퍼지지 않음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헤민한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월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연극 '케이멘즈 랩소디'

"평생 널 지켜주겠어."

한국 남성들이여, 이제 이런 말은 프로포즈 금기어가 됐다는 걸 기억해두자. 만일 여친에게 그런 말을 했다가는 "너 자신이나 잘 지켜"라는 말이 돌아오기 쉽다.

세상의 변화가 새삼스럽기는 하다. '라떼는' 그런 말이 노래 가사에 자주 등장하는, 듣기 좋은 말로 통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상하다. 남녀가 사귀거나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남성이 여성을 '지켜준다'고 볼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데, 남성들은 왜 지키지도 않을 말을 남발하고 여성들은 기분 좋게 속아준 걸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남성중심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폭 젖은 채 우리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과연 그랬던가' 의심스럽다면, 연극 '케이멘즈 랩소디(K-Men's Rhapsody)'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등 뭐든 'K'만 붙이면 잘 팔리게 된 시대에, 연극 시장에 등장한 'K멘'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랩소디'란 단어는 서사시의 일부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흔히 '왕시곡'이라고 번역되는 음악의 한 갈래다. 혐오의 뜻으로 '한남'이라 불리곤 하는 한국 남자, 'K멘'들의 부적절한 연대기를 서사적이고 영웅적이며 민족적인 색채를 띠는 장엄한 음악 형식에 빗대어 역설적으로 패러디한 블랙코미디다.

두산아트센터와 극단 드림플레이 테제21의 공동기획으로, 대표작 '알리바이연대기'로 동아연극상·대한민국 연극대상 등 주요 연극상을 휩쓴 김재엽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직접 쓰고 연출했다. 2020년 두산아트센터 창작극 개발 및 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됐고, 2022년 대학로 선돌극장 초연을 거쳐 두산아트센터에 입성했다.

독자적인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연극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주장하는 김재엽 특유의 재치와 초철살인, 동시대적 언어감각이 어우러져 남성중심 사회의 일그러진 초상을 디테일하고도 우스꽝스럽게 그려낸다. 남성과 여성은 영원한 동반자라서일까. '한남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근원을 탐구한다고 선언한 무대가 결국 여성들의 피차별의 역사로 점철된다.

연극은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여왔던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이상한 일이었



# "싸나이로 낮으면 값을 해야지" K남성 뼈 때리는 블랙코미디

연극상 휩쓴 김재엽 교수가 연출 일제강점기~강남역 살인사건까지 남성중심 사회 광시곡 빛대 풍자 '사랑'으로 포장된 범죄수준 스토킹 차별당한 여성들의 역사 등 조명



1 남성중심사회의 일그러진 초상을 풍자 가득한 마당극 한바탕처럼 풀어낸 연극 '케이멘즈 랩소디'. 2 | 작품으로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수상한 김세환 배우. [사진 드림플레이 테제21]

음을 깨닫게 한다. 서막은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로 꼽히는 가수 윤심덕이 연다. 1926년 연인 김우진과 함께 생을 끊었지만, 1931년 잡지 '신여성'에 '윤심덕이 살아 있다'는 기사가 등장한 것. 기자도 편집자도 아무도 믿지 않으면서 잡지를 팔기 위해 5년 전에 죽은 여성을 이야기거리로 갖고 놀며 두 번 죽인 셈이다. 신여성을 위한 잡지가 아니라 신여성을 조롱하는 잡지였던 것이다. 명창 박녹주를 향한 소설가 김유정의 진한 사랑도 사실 심각한 범죄 수준이었다. "오늘 너의 운수가 좋았노라. 그 길목에서 너를 기다리기 3시간, 만일 나를 만났으면 너는 죽었으리라" 같은 협박 편지를 매일같이 쓰던 김유정이 당시엔 절절한 로맨티스트로 미화

되곤 했지만, 박녹주로서 "협박에, 스토킹에, 교제를 빙자한 폭력까지 조선 짜질이 3종 세트를 다 갖춘" 스토커였을 뿐이다. 무거운 이야기지만 경쾌한 풍자로 가득한 마당극처럼 풀어 가볍게 볼 수 있다. 역사에 상상력을 보탠 수많은 장면 재연이 세월을 넘나들며 빠른 템포로 모자이크되는 탓에 숨가쁘긴 하지만, 1인 10역 정도는 당연하게 소화하는 일곱 배우들의 '열연기에 시종 박수와 웃음이 터져 나온다. 특히 '짜질남' 김유정에 빙의해 장구를 치며 이승기의 '누난 내 여자니까'를 열창하다가 급기야 'K좀비'가 되고 마는 김세환 배우의 연기는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수상할 만큼 인상적이다.

과거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다. "얼마 전 조선창극단에서 소리꾼 배우를 모집한다기에 내 오랜 염원으로 창극에 도전하여 오디션을 보아 킬러 붙어 버렸지요. 근데 늘상 절대 권력자처럼 군림하던 할아버지 스승이라는 자가 어젠 불쑥 잡자리 운운하며 변태수작을 부려와 당장에 인연을 끊고 '미투'를 외쳤소." "잘했다. 아예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야" 의미심장한 대사들이 변하지 않는 젠더 갈등의 과거와 현재를 종횡무진 날라다.

지루할 때쯤 2막은 분위기를 전환해 게임 속으로 들어간 컨셉트로 한층 발랄해진다. '애국자 게임'의 메인 캐릭터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떠오른 '국부'가 소환된다. 한국전쟁 당시 후방으로 도망가면서 여성 의용군을 모집하고, '현모양처'를 장려하는 한편 미군 부대 주변에 기지촌을 세워 '양공주'를 양산해낸 모순을 꼬집는다. 국부의 '애국자 게임'에서 여성은 희생양이었을 뿐이며, 지금의 '한남'들이 프로그래밍된 책임이 그에게 상당히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좌파 연극'으로 치부하기엔 뼈아픈 자기반성이 있다. 80년 광주항쟁 등 운동의 현장에서도 성폭력이 있었고, 그럼에도 '여성해방'의 구호는 민족과 민중, 계급해방의 구호에 무참히 밀려나야 했으며, IMF 구제금융 당시 노사협상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무더기 정리해고를 당해야 했던 순간들에도 확대경을 비추며 "그때 우린 왜 그랬을까?" 자문한다.

흥미로운 건 일제강점기였던 1927년에 이미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결혼의 자유 확립, 봉건적 인습 타파를 외쳤던 여성운동 조직 '근우회'가 결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근 10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에 여성 혐오와 젠더 갈등이 난무한다는 건, 이 무대에서만도 헤아릴 수 없이 확인한 여성들의 투쟁에서 '한남'들이 사실은 깊은 고민을 한 적이 없다는 방증 아닐까.

시작부터 포스트잇이 잔뜩 붙어있는 원세탁 무대는 엔딩에서야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추모 현상이 된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순수하게 희생자를 추모를 하러 온 세관은 "남자 새끼가 쪽팔리게 여자를 괴롭히고 사냐?(중략) 등신들, '싸나이'로 태어났으면 그 값을 해야지"라며 흥분하다가 여친 희정에게 이별 통보를 받는다. 희정은 왜 그랬을까. 애초에 '케이겔'은 '케이멘'의 허세 따위 원한 적 없었는지 모른다. 유주현 기자

20대 초입의 청년들도 부러워 할 만큼 중장년층 여성과 남성들에게 세상사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는 성인전용 상품 L C Plaza. P.O. Box 2831. Garden Grove. CA 92842. 전세계 어디서나 1-213-210-9720 (상담 및 주문), 인터넷 주소: www.yyykkk.com (지불 방법 : 무통장 은행입금 (Bank of America에 직접 입금), 체크 또는 머니오더 송금, 현금 구매, 모든 Credit 카드, Debit 카드, Check 카드)

남성들의 원기회복과 정력 보강에 특효로 알려진 한방 보약재와 천연 생약재 발효 성분으로 구성된 무결점 부작용 천연 비아그라는, 미국 파이저사의 비아그라를 복용했을 때, 케미컬 성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가 전혀 없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으로서, 지난 26년간 이어져온 꾸준한 판매실적과, 고객들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100%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70~80대 남성도 20대 초입의 건강한 청년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5캡슐 1병 & 20캡슐 1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발기가 잘 안되는 경우  
▶ 강직도가 충분치 못하거나 일찍 풀리는 경우  
▶ 비아그라를 먹어도 전혀 효과 없는 분께 특효  
▶ 내성이 전혀 없는 자연 치유력 증진 효과 보장  
▶ 여성이 너무 좋아하는 최고 강직도와 지속성

여자가 생각날 때 1캡슐만 복용하면 1시간 경과 후에 여성의 엉덩이나 가슴을 쳐다만 봐도 야릇도리가 분기뿜는 강력한 남성기 발기력 개선 효과가 1주일 가량 지속되게 해주는 보약. #백인 여성과 일본 여성들의 성생활 동영상 DVD #혼자여도 전혀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게 해주고, 혼자여서 되려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싱글 남녀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자위용품.

#69 전문가가 권장하는 남녀공용 사랑의 윤활유 『우먼센스 오르가즘 젤™』 \$58 (100회회 사용) 끈적임과 자극성 냄새와 색깔 맛이 전혀 없는 무색무취 무자극성 제품입니다. 남녀 모두 상대방 모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여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애액과 흡사한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해주고, 남녀 모두에게 미칠 만큼 달달하고 감미로운 황홀한 질 환경을 제공해주며, 삽입하기 전에 서너 방울 바르고 하면 관계가 끝날 때까지 촉촉하게 미끈거리는 아들아들하고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감촉을 제공하는 윤활 작용과 제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여성의 성감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주며 평소보다 남성의 성욕이 왕성해지고 발기력이 월등하게 강해지며 여성기의 세균 감염을 방지해주는 위생 작용과 질에서 풍기는 콧물 냄새까지 청결하게 없애주는 기능성 윤활제 제품입니다.

61 향기로 후각을 자극하여 충동적으로 성욕을 느끼게 해주는 남녀공용 성욕 자극제 향수, 부부와 연인들의 황홀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만들어 주는 남녀공용 성생활 개선제 최음제 향수, 향기를 맡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뜨겁고 황홀한 욕정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달달한 매혹의 향기 최음제 향수 \$45 (90회 사용) 자신의 신체 부위에 일반 향수처럼 1~2차례 뿌리고만 있으면 처음보다는 이성이라도 나에게 호감과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가장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G-Spot을 발달시켜주고, 단련시켜주는 천연 옥 질 속에 넣고만 있으면 여성 불감증과 오르가즘 장애 4주 만에 완성, 질 괄약근 수축운동과 여성 요실금 자가치료 \$75

10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끼우고만 있으면 절대로 시들지 않는 남성기 발기력 강화제 O 링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밀착시켜 끼우면 빼내기 전에는 절대로 시들지 않는 견고한 강직도 지속 효과와, 터질듯이 부풀어오르는 우람한 사이즈 확대효과, 도통한 링 테두리 부위가 여성생식기를 미칠 만큼 즐겁게 비벼주고 문질러주는 지압 마사지 효과의 O 링

1시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가량 지속효과, 100%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자양강장제 개념의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一石九鳥(일석구조)의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남성 생식기능 개선제품



- 5 캡슐 1 병 & 20 캡슐 1 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 ① 신장과 간 기능 건강에 100% 확실한 효과 보장
  - ② 늘상 피곤한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한 방에 퇴치
  - ③ 만성 전립선비대증 근본 원인 치료 효과 보장
  - ④ 70~80대 남성들도 규칙적이고 활기찬 성생활
  - ⑤ 점점 양이 줄고 메달라가는 남성 호르몬 보충제
  - ⑥ 막힌 혈관 청소와 고혈압 개선 근본 원인 치료제
  - ⑦ 우람한 남성기 확대 효과와, 견고한 강직도 보장
  - ⑧ 먹기만 하면 커지는 남성기 성장 발육 확대 효과
  - ⑨ 남성 발기부전과 조루증에 확실한 효과 보장

당뇨병 환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게 해주며, 70~80대 남성도 나이와 무관하게 생각 날 때마다 발기력을 팡팡하게 만들어주는 즉효성 남성 발기제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1시간 전에 1캡슐만 복용하면 1주일 가량 지속되는 넘치는 정력에 보약효과 만점의 즉효성 남성기 발기제

#12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멧돼지 남성들의 성생활 필수품 오리지널 천연 낙타 속눈썹 링 (세척을 통해 만 연구적으로 사용) 말총처럼 가실까실한 환상적인 감촉과 실크 원단처럼 하늘거리는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촉감이 실신할 만큼 감미롭고 달달하게 여성기 속살을 구석구석 섬세하게 쓸어주는 전설적인 성생활용품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 카툰 릴레이

#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쇼핑**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4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 구인/구직

###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  
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문: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력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필수  
-1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력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력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걸려서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리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 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Information Clerk for YM Dental Lab,  
703-330-1990(Ask Mr. YM Kim)

1) 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2) 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240-477-568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 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직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시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모집  
\*College Park Area, MD  
-Shift Manager 교대근무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  
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이중언어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 301-333-2209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 자스시 & fried  
chicken / 파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시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시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우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선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가능  
571-215-6767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 <세탁/얼터레이션>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리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시어  
Tel. 703-628-9100

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 분  
파트타임/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틀에서  
파트타임 하실 분  
연락처: 703-300-495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 구인

##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렌트 수입 좋은 콘도 4채 매매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200/m
- 매매가: \$5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중앙일보

<p><b>&lt;정비/바디샵&gt;</b>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p>	<p>연합감리회 위생통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p>	<p>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연락: 240-903-0777</p>	<p>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 가라지. \$2,850 703-762-6759</p>	<p>240-543-6427 애난데일 한강근처 타운홈 방세놓음 전화: 571-699-9707</p>
<p>자동차 메케닉 구함(애난데일) 571-243-9899</p>	<p>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p>	<p>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 분 웨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로드, 202-271-2726</p>	<p>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p>	<p>페이팩스 VA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아주 가까운 곳. 직장인 환영 703-419-0337</p>
<p>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일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p>	<p>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p>	<p>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 (파/폴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p>	<p>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세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p>	<p>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방1 \$600 방2개 \$10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p>
<p>자동차 정비소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처지 703-577-5866</p>	<p>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p>	<p>베이비시터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 분, 성실한 분 213-839-3735</p>	<p>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p>	<p>Fairfax/Burke NOVA, GMU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 문자 바람)</p>
<p>첸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p>	<p>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마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p>	<p>부동산 렌트 RENT</p>	<p>&lt;콘도 렌트&gt;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p>	<p>단독주택 2층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 별도/ 주차/사위별도, 남자분 / 금연자 29번과 198번 사이 메릴랜드 버트스빌 240-413-2738</p>
<p>엘리콧시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p>	<p>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p>	<p>&lt;싱글/타운하우스 렌트&gt; 페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amp;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p>	<p>&lt;콘도 렌트&gt; 페어팩스 웨그랑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p>	<p>MD 렌함지역 조용하며 교통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p>
<p>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p>	<p>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 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p>	<p>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링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p>	<p>&lt;방렌트&gt;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p>	<p>노스 포트맥, NIST 근처 싱글홈 반 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p>
<p>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p>	<p>필그림유치원에서 토틀러반 오후 파트타임 선생님 구합니다. 571-212-9020</p>	<p>아난데일 홈디포 옆 위치, 넓고 밝은 3 level 타운홈, 방3, 화2+2.5 전체마루, 맥, wal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p>	<p>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p>	<p>센터빌 H-마트, 하이스쿨 각 5분 거리 방 세놓음, 여자분 환영. 703-507-1180(문자 요망)</p>
<p>&lt;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gt; L&amp;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p>	<p>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p>	<p>아난데일 홈디포 옆 위치, 넓고 밝은 3 level 타운홈, 방3, 화2+2.5 전체마루, 맥, wal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p>	<p>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p>	<p>DC 출퇴근 매우용이. 395 exit 근처 집앞에 펜타곤 가는 무료버스 10분 간격. 가구 가전 완비. 여성분·금연자 환영 240-477-3232</p>
<p>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p>	<p>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 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p>	<p>콜롬비아 싱글홈 월\$3,800 방5, 화4, 차고2, 리버힐 학군 410-599-1800 문자요망</p>	<p>센터빌 롯데 옆 타운홈, 방1개(욕실/화장실) 571-970-8048</p>	<p>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mr. 권)</p>
<p>HD Plus Construction 말뚝상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캐번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프로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p>	<p>아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p>	<p>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p>	<p>센터빌 H-마트 근처 단독주택 방렌트 지하방+거실, 윗층 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p>	<p>애난데일 한공간에 방, 욕실, 키친이 꾸며져 있고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구비 571-232-6052</p>
<p>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채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p>	<p>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 하실 분 703-798-7270</p>	<p>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p>	<p>센터빌 CVT 근처, 지하 전체 렌트(거실, 화장실, 방, 키친, 냉장고),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1,300 571-243-7027 (문자)</p>	<p>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자, 그랜마트 6분 롯데 11분, 오래게실 분 702-622-8853</p>
<p>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p>	<p>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폴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p>	<p>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p>	<p>센터빌 타운홈 H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p>	<p>MD 렌함지역. 조용·교통편리, 직장인 원함. 즉시입주 가능. 방세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p>
<p>&lt;기타 구인/구직&gt;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p>	<p>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p>	<p>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p>	<p>MD Silver Spring 한아름 10분거리 조용한 단독주택 2층. 넓은 마스터 베드룸 쓰실분. 가구완비, 인터넷, 간단한 취사</p>	<p>MD 렌함지역. 조용·교통편리, 직장인 원함. 즉시입주 가능. 방세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p>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싱글홈 (단층 구조) 추천 \$495,000**

1층(방3)과 반지하(방1, 화1)에 각각 방, 화장실 보유  
I-66 Highway에 근접, 교통 편리한 지역  
병원, 쇼핑몰, 그로서리 등 근린생활 용이

**1층 콘도 (시니어 생활 편리) \$350,000**

방2, 화2, 1,200 스퀘어,  
여유로운 주차 환경,  
저렴한 콘도피

##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시?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5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티데이블 놓을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주차장.  
703-966-9937

## 부동산 매매

### 〈싱글/타운/콘도 매매〉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주택, 방4, 화4, 편리한렐름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순nett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뽀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뽀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진입로 독립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571-421-0863

**일식집, 에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언트몹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 리워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 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 분, 세탁소 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 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లే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힐더 C  
· 시간: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 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임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 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세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시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 〈중고품/기타매매〉

흰색 Vertical Blind(Triple Door 용)  
80"H X110"W. 무사용 새것(Box)  
Sale \$400 (Reg. \$800)  
703-431-4521 (문자 주세요)

이사(downsizing)세일  
-treadmill & bike machine \$100  
-베라렘 \$100 -3bikes \$100  
-tools \$100 - living room set \$300  
문의: 703-581-2631

피아노(Sohmer & Co) Free로 드립니다.  
240-477-2612(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 / 8,000 / 10,000 / 12,000 (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첼틀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모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거실용 대형 카펫 \$1000  
-도자기 꽃병(4세트) \$100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피아노(Everett) Free로 드립니다.  
필요한분 문자주세요.  
Tel. 571-668-0805

허리 운동하는 까꾸리 싸게 팝니다  
사용설명서 있음 \$50  
240-477-3232

**골프채 판매**  
-드라이버 9.5도 31 5cc  
-아연 닉켄트 4-9 SP번까지 8개  
-던랩(스페인제) 3-9 SP 7개  
-요넥스 6-9 PN 6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족 소파 3명  
\$200, 등산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 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언 샷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 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팝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병장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베레스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덕,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 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롤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 〈보석〉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헬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팅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풀 청소. 응급 수해복  
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밀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는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퍼어, 핸드맨서비스  
집밥-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산, 계산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 〈입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람 들판 잔디 깎기  
올라라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com  
HomeAdvisor  
Best Home Improvement Contractor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20년 전문!!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귀국이삿짐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타주이사      ◆ 100% 자체보험으로  
해외이사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시내이사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질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http://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mailto: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Janet: Do you like chocolate?  
재닛: 초콜릿 좋아해?  
Don: I can take or leave it. Why?  
단: 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왜?  
Janet: I got some incredible chocolate for my birthday and I was wondering if you would like some.  
재닛: 생일에 기가 막힌 초콜릿을 좀 받았는데 너도 좋아하나 싶어서.

Don: On second thought I love chocolate.  
단: 다시 생각해 보니 나 초콜릿 좋아하네.  
Janet: What made you change your mind?  
재닛: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어?  
Don: I believe it was the word "incredible" that did it.  
단: '기가 막힌'이란 단어 때문이겠지.  
Janet: You are so easy.  
재닛: 너 참 귀도 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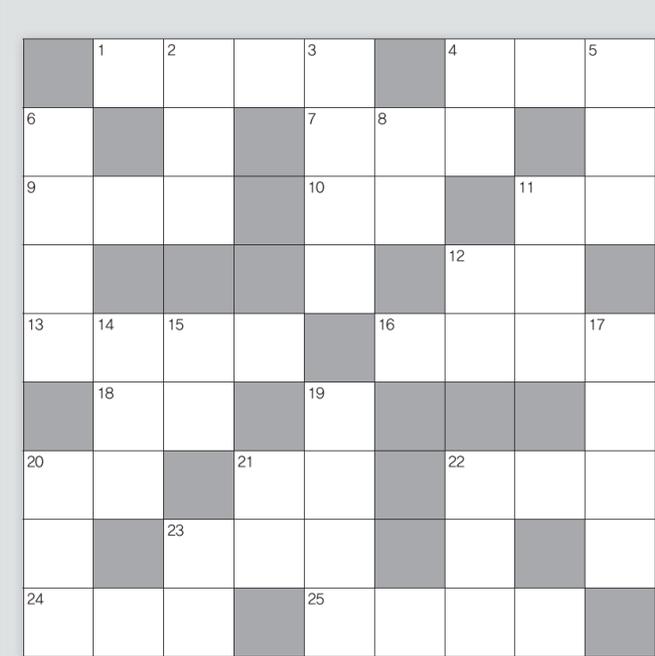
**on second thought: 다시 생각해 보니**  
(Janet and Don are in the student lounge at school...)  
재닛과 단이 학교의 학생 휴게실에서...)

Don: I have been accused of that.  
단: 나 그런 소리 들어.  
Janet: Here take one.  
재닛: 여기 하나 받아.  
Don: That is sensational! Can I please have another one?  
단: 맛 끝내준다! 딱 하나만 더 주면 안될까?  
.....

▶ change (one's) mind: 마음을 바꾸다.  
"I have changed my mind about taking a vacation."  
(휴가 가려던 생각을 바꿨어.)  
▶ (one) is so easy: 귀가 얇다. 다루기 쉽다.  
"She'll be able to change his mind because he's so easy."  
(그녀는 귀가 얇어서 마음을 바꿀 거야.)

기억할만한 표현

**날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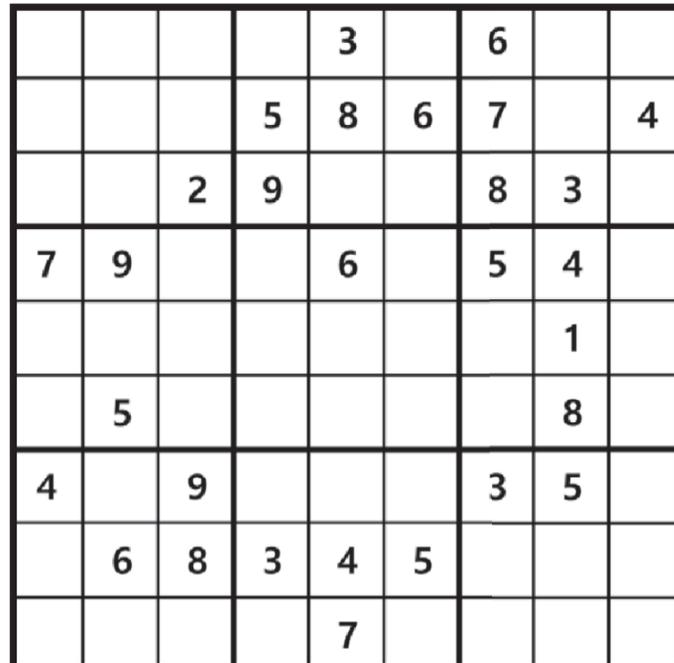
**가로열쇠**

(1) 직업으로 삼지 않고 취미로 즐기는 사람. ↔ 프로 (4)상륙작전과 수륙양용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7)한 발은 들고 다른 발로 뛰는 동작. 아이들은 고무줄을 ~로 뛰어서 넘었다 (9) 손과 발로 차기, 지르기, 막기 따위의 기술을 구사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한다 (10)어린이를 위하여 지은 이야기 (11)임금의 딸 (12)음식을 만들거나 차리는 방 (13)따뜻하고 좋은 봄철. 때는 바야흐로 봄빛이 무르익는 ~이다. □□□절 (16)주인과 손의 처지가 뒤바뀐. 사물의 선후, 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뀐 (18)원시 사회의 우두머리 (20)물고기의 배. 종아리 뒤쪽의 살이 불룩한 부분 (21)가죽을 재료로 하여 만든 서양식 신. 거리에 여기저기 있는/~ 수선소/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평화롭다/마음은 넘친다 (정현종) (22)동해, 남해, 서해에 둘러싸인 우리나라 국토 (23)넉살 좋고 시원스럽게 말로 떠벌려 일을 주선하는 솜씨. 그는 ~ 좋게 아무한테나 굽실댔다 (24)대, 갈대, 수수깡, 싸리 따위로 받처럼 엮어서 만든 울타리. □자□ (25) 푸른 시내가 흐르는 산골짜기. □계□□

**세로열쇠**

(2)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 (3)상대편의 어깨에 서로 팔을 얹어 끼고 나란히 섬 (4)해수면으로부터 계산하여 잰 육지나 산의 높이. 북한산은 ~ 836m이죠 (5)육대주의 하나. 오세아니아 (6)대서양, 인도양과 함께 세계 삼대양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바다의 남부. 타히티, 사이판이 있죠. 남□□□ (8)금으로 만든 돈 (11)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싸움 (12)술을 좋아하는 사람 (14)봄철과 가을철에 입는 옷 (15)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 (17)어린이가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 (19)아주 이른 새벽 (20)어린이에게 등에 업히려는 뜻으로 내는 소리 (21)수증기가 높은 하늘에 떠 있죠. ~아! ~아! 너 가는 곳 어디메요? 오늘따라 내 마음 널 따라가고 싶구나 (22)제주특별자치도 중앙에 있는 산. 백록담이 있죠. 국립 공원. 해발 1950m (23)예전에,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물건. 봄처럼 제 오시네 새 풀 옷을 입으셨네/하얀 구름 ~ 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꽃다발 가슴에 안고 뉘를 찾아오시느고 (이은상)

**스도쿠**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① 워싱턴 중영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구인  구인

**뷰티서플라이**  
 텍사스 달라스 백화점 물매가 \$25만, 주인직접매매 4,700sf, 렌트\$7,000(UT포함) (254)652-1867 beautyworlddenton.com

**일본식당 구인**  
 \*데빵 슈프 0명 \*스시 슈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결여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한식당**  
 경험자 우대 숙소제공 가능 연봉 협의후 결정 오레곤주 포틀랜드 (971)451-9022

**성실하신분**  
 컨비니언스��어 \*루이지애나주 (504)430-8426 (504)373-2163

**수선 기술자 급구**  
 Speed Alteration  
 일감풍부, 연인컴10~12만 부부팀 환영, 숙박가능 배우면서 일할수도 있음 4551 Office Park Dr. Jackson, MS 39206 (213)507-0387

HotDeal.KoreaDaily.com  
 미주 한인 사회 최저가 **온라인쇼핑몰**  
**HOT DEAL**  
 문의 213.368.2611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THE KOREA DAILY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전문가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askusa@koreadaily.com로 메일 주세요.

**꿈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로 살면 **Up to 40% 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홍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전산할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인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야생산삼공통구매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5500 → \$1700  
 지금지긋한 모든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 삼삼음육관 도안역사관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행복한 사연 꼭 보세요** 이메일: YP518119@gmail.com Tel. 714-733-3206 "카톡, 텍스트 메시지, 전화는 삼가합니다 Dr 박"  
 돈은 은행에 있다고 사업이 아니지요. 보관과 예금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관되고 있는 동안 유이트 메디칼 그룹 병원 닥터 박입니다. 본인일도하고 당신 돕고 하는 저의 계획은 10만불 2500불, 20만 5000불을 매달 드릴려고 합니다. 아무런 계약없이 은행에 돈이 있고 1원도 남에게 주지않고 추라스트 구좌로서 은행에 보관하며 당신이 언제든 찾아갈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법으로 단단히 지켜줍니다. 한국에서도 ok 특히나 유학생및 노인은 자기돈 은행에 잘 보관하고 저가 돕는 돈으로 공짜로 몇배 행복한 생활하시면서 살다가 원금을 자식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려주면 자식도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데 받는것 좋으나 부모를 돌본다는것 그들은 가난해요 효도 없어요. 또한 10만불로 사업하세요. 돈은 가지고 있고 매달 2500불 행운입니다 **1밀리언 되면 10명 되면 접겠습니다. 서로 이런일이 진행되면 집과 돈도도우려 합니다. 모두 모이면 40일후 매달 저의 구좌에서 돈이 지불됩니다**  
**\$10만 예금 시 \$2,500 매년 \$2.5만 \$20만 예금 시 \$5,000 매년 \$5만 \$1밀리언 예금 시 \$25,000 매년 \$25만**  
 보통 은행 예금처럼 아무때나 원금 찾아가면 됨(계약 없음) 주인은 가지고 있으면서 혜택을 누리는 것임 학생, 노인등등 이것이 사랑이고 행복입니다!!!  
 위 모든 사항은 준비된 자에게 돕는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자에게는 행복을 나눌 수 없습니다 투자가 아니며, 사기도 아니고 마음 믿어준것이 감사합니다 이 계획은 기업이 아닙니다. 순수한 가정이고 정신과 의사 그리고 MD의사입니다.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더 나은 생각으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행복을 주고자 합니다.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어??!!**  
 The JoongAng Chicago, Los Angeles, Atlanta, New York, Washington DC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MD, DC, VA

#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